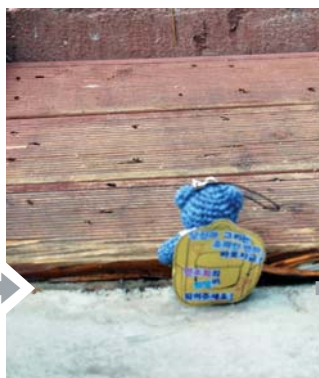


함께가는 여성

2009.5.6 www.womenlink.or.kr



여경의 책상 위에 어지럽게 놓인
자그마한 아이들은 상상 속에서 꿈지락 댄다.
그들의 이야기는 '민우회 찾아 삼만리'

곰돌이가 간다. 씽씽카 타고 간다. 어디로? 민우회로.

민우회 찾아 씽씽카 타고 달려오는
그 아이들이 나오는 꿈과 같은 상상에서 깨었다.

아, 진짜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단순히 자그마한 아이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할 이들을 그토록 바라고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

꿈에서 깨었지만 기분이 좋은 그런 - 날이었다.

언제라도 달려올 것만 같은 그/녀들을 바라며

- 여경 -



함께가는 여성

2009. 5. 6



02 민우ing

고용평등상담실 집중상담 '당신은 직장에서 안전하십니까?'
민우회가 띄우는 소박한 사랑고백 ♥
성산동, 유쾌한 뉴스~

09 민우스케치

10 민우칼럼 창

눈물의 식발과 로리타의 긴 금발

12 민우역사기행

내 몸의 주인은 나 -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

15 기획

촛불, 잊을 수 없는 그 의미 하나

- 촛불 산책 하실래요?

- 촛불 밖에서 바라본 촛불

- 이제 우리들의 촛불을 이야기 할게.

24 특별한 만남 ①

배우 권해효, 인간 권해효, 재능나눔 권해효

26 쟁점과 현안

한국 연예산업의 희생양 '故 장자연'

29 사이광고 ①

'섹슈얼리티'로 놀아요! (멋진 하루)

30 특별한 만남 ②

민우회와 대학 내 여성주의자가 만났을 때

32 모람풍경

민우회 신입회원을 소개합니다

34 마포나루에서

친해지길 바래! 나루인들의 불살 떨리는 1박 2일

36 문화산책

생애전환기 이후에 보이는 것들

38 나의 삶, 나의 이야기

날아라, 갈차~! 초보아빠의 육아휴직 이야기

40 생협이야기

공정무역을 지지하십니까?

42 9개의 시선

끈질긴 도전으로 만난 소중한 인연

44 지부소식

재기발랄 발칙한 그/녀들의 회원모임

46 사이광고 ②

47 독자마당





고용평등상담실 집중상담 '당신은 직장에서 안전하십니까?'

경제위기 시대, 여성노동자의 피/땀/눈물로 빛은 10년+10년

선백미록(싱기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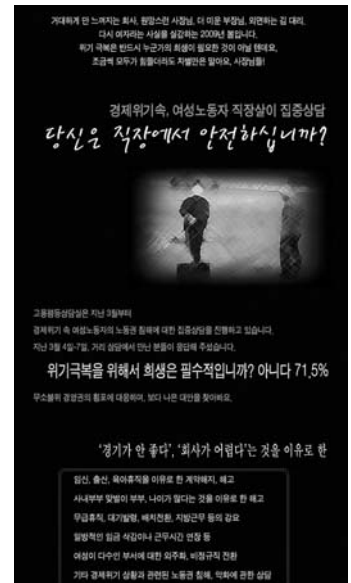
고용평등상담실은 지난 4월말까지 경제위기시대 여성노동자의 직장살이 집중상담 ‘당신은 직장에서 안전하십니까?’를 진행했다. 거리, 온라인, 전화, 방문 상담을 통해 위기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현재를 집중조명하고 쏟아지는 위기극복 담론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밀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절박함이 배경이었다. 사용자, 여성노동자, 동료 간의 관계와 그 역학, 내면까지 보고 싶어 ‘직장살이’였고, 실제로 노동은 살이기에 부당한 해고, 복직이 전제되지 않는 무급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장거리 발령 통보 속에서 단절되는 것은 경제적 수입만이 아니었다. 총체적인 삶의 비전, 존재감, 자존감에 남긴 상처는 슬프고 우울하고 무력한 인간¹⁾이라 느끼게 했고, ‘여자’라서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비상조치는 자신의 왜소함을 각인하는 계기였다. 2009년 봄이 이렇게 아프게 가고 있다.

2008년 12월~ 2009년 4월²⁾까지 총 242건의 여성노동상담이 접수됐고, 이는 작년 동기기간에 접수된 147건에 비해 65%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 63건이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 정리해고, 임금삭감, 무급휴가, 대기발령, 전환 배치, 일반적인 임금삭감, 퇴직금 강제 정산, 연차휴가 소진 강요 등이 주요내용이었다. 반복적인 일대일 면담을 통해 암묵적인 것에서 노골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압력을 주어 스스로 자식서를 쓰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다. 회사상황, 조직개편, 인원감축 등을 이유로 ‘여성’을 선정, 비정규직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임신했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 여성 중 누군가 또는 그 전부가 이러한 인사조치의 대상자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중상담기간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의 경영논리를 해부한다.

거짓말: 위기담론에 편승해 긴박한 어려움을 가장하다

- 지금은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나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 경영상 해고라고 하면서 신임사원 채용은 이루어지고 있다. (2008.12.26)
- 3년 동안 적자라고 말하지만 회사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지는 모르겠다. 왜냐면, 파주에 지금 또 공장도 새로 짓고 있고, 정리해고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식적인 통로 말고 몇몇 대상을 정해서 강압적으로 퇴사 압력을 넣고 있는 거다. (2009.1.9)
- 경제위기가 언급되고 사육을 새로 지었다. 빛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사육을 새로 짓나? 회사가 어려워우니까 나가란 이야기를 했지만 웃기는 이야기다. (2009.3.30)

인원감축을 요하는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해고의 사유로 언급된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신규사원을 채용하거나 새로 공장을 짓고, 사육을 짓는다. 한 사람의 고용을 유지하는 비용이 과연 사업 확장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 수 있겠는가? 위기담론은 편의적이기까지 한 해고 통보로 이어진다.



1) 방문상담 사례 中 “제가 이런 사람 밖에 안 되서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생각하니 슬프고 우울합니다.”(2008.12.31)

2) 2008년 하반기 이후 경제위기설이 본격적으로 유포되고 12월에 고용관계변동이 많아, 경제위기관련 상담이 다수 접수되었다. 그러므로 통계 기간을 2008년 12월에서 2009년 4월로 했다.

○ 만우ing

● '골치 아픈 직원은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짜를 사람은) 팔라 야지.' 라면서 그동안 해고에 대한 암시를 계속 쫓다. (2009.2.19.)

● 팀장님들을 시켜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 사직서 제출은 전 직원이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 후 2월 27일 회장님이 매출이 계속 적자니 조직개편을 다시 하라면서 회사에 잘 안 따르는 사람은 잘라버리라고 했다. 3월 2일 조직개편안에 나는 교체대상이 됐다. 만약 회사 사정이 정말 안 좋아 인원을 줄이는 거라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 같다. (2009.3.17.)

사업주에게 경제위기는 하나의 '호기'로서 골치 아픈 직원이나, 바른 말을 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기회가 되고 심지어 사례와 같이 본인의 폭언에 문제제기한 직원을 조직 개편을 가장해 해고하기도 한다. 실질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있지도 않으면서 재택근로의 도입, 계약직 전환 등, 보다 사용자 편의적인 조직 개편의 근거로 매출저하, 경기불황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비결합: '여성', '비정규직'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여성들은 대개 수십 년을 근무하고도 남성초임 임금을 받거나 남성의 60%를 받는다. 비용절감의 차원이라면 임금이 고액인 사람에 대한 고용조정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러나 저항수단이 없는 약자부터 순위는 정해진다. 여성은 '유휴인력' 이자 산전 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하는 손해를 끼치는 존재이므로 해고대상 1순위이고, 해고되더라도 집에서 육아에 신경 쓰면 될 존재가 된다. 이런 말 속에 여과 없이 드러난다.

● "우리는 임신한 너를 배려해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서로 양보하면서 가야지 왜 그렇게 막무가내냐?"며 저를 혼내고 있습니다. (2008.12.31.)

● "임신으로 3개월 공백 기간이 생기니까 니한테 그런거 아니냐? 생

각해봐라 회사사정이 어려운데 3개월 공백이면 얼마나 손해냐? 내가 무슨 차별을 했냐?" (2008.12.23.)

이와 같이 희생이데올로기는 여성에게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설득의 과정조차 없다. 애초에 비정규직을 만들고 확실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경영 위기에 가장 용이하게 인력 조정을 하기위해서다. 비정규직은 '해고가 불가능' 한, 정확히 말하면 해고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이미 줄었다. 요즘 경기가 불황이라고.. 비용 줄이는 차원에서 일반들을 해고했다. (2009.3.19.)

●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9년을 일했습니다. 회사가 워크아웃 중에 있어요. 두 개로 나뉘어서 하나는 A회사에 인수합병, 나머지는 별도 법인이 됐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정리한 것이 계약직들이예요. (2009.3.16.)

무기력 : 애사심에 호소, 마음까지 착취하다

경영상의 위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다. 그러나, 회사는 조직중심의 분위기 쇄신을 주장하며, 개인에 대해 애사심을 강조하는 한편 언제든지 누구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공포의식을 조장한다. 이렇게 학습된 경영자의 논리는 여성노동자에게 내면화되어 회사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는 근거가 되거나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든다.

● 회사가 어려운 부분도 알고 있고, 나도 회사와 나쁘게 싸우고 싶지 않고, 얼굴 붉히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회사가 어려우니까 회사에 어떤 돈을 요구하고 싶지 않다. 회사에 어떠한 손해도 없게 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2009.1.21.)

● 다시 근무하고 싶긴 하지만, 육아휴직을 두 번이나 썼기 때문에 회사한테 미안하기도 해서 더 다닌다고 주장하는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도 정리하는 마당에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을 구해서 내가 일할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 내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하는건 너무 막무가내가 아닌가 싶다. (2009.4.8.)



표액을 100만원 씩 빼주겠다'는 회식자리, 거래처 발주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거래처 사람들을 모아 놓고 여직원에게 접대를 강요하는 회식자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업에 대한 보상은 회사 나름대로 정한 '위로금'과 실업급여의 보장뿐이다. 더 이상 해고는 '희망'과 '명예'가 아니고 여성노동자의 내면까지 착취하는 무기력한 상태의 개인에 대한 폭력에

한편, 불황 속에서 매출 증가가 회사의 최대 목표가 되면서 영업 수주 따내기 회식이 늘어나고 매출 목표의 증액과 이를 이용한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어 경제위기는 곧 가해자의 논리가 되기도 한다. 경기가 어려워 매출 추진이 어려운데 '폭탄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목

가깝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10년 전의 경제위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0년 전에 경영위기라는 이름으로 행취한 주요한 조치들-경영상해고의 도입, 비정규직의 전면 확대, 노동의 유연성 강화-이 그야말로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정부는 사용자의 경영노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고, 경제위기는 사용자들이 요구를 관철하고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의 토대가 되고 있다.

1944년, 국제노동기구(ILO)는 필라델피아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채택했다.

①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②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진보를 위해 불가결한 요건이다. ③ 일부의 빈곤은 사회 전체의 번영에 있어 위험이 된다. ④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 노동자 · 사용자 대표들이 계속적이고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필라델피아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인권보장의 시초가 되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 이러한 원칙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경제위기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조치들은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전체 노동권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 10년 만에 다시 경제위기가 아니라 10년간의 경영자 논리가 비로소 결실을 맺고 있는 시기다. 그들의 거짓과 비겁함에 대해 대응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무력한 여성, 사업장을 벗어나 나와 당신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어떤 논리로 당신의 마음을 채울 것인가? ㉞

선택미륵(싱기루) ● 일을 하고 있음에 썩 나쁘지 않은, 사실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 감사한다. 퇴근길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노동부 지원금, 월세, 도시락, 직장도 나도 가난하다. 그리고 초라한 가부장에 대해 생각한다. 내가 갇혀있는 그의 기억과 그의 뼈에 대해.

민우회가 띄우는 소박한 사랑고백 ♥

회원희망팀 ●

아침 성산동 사무실로
향하는 출근길,
나뭇가지 끝에 연두빛 새싹이
점점 건강하게 변하는 것을 바라봐요.
초록이 전해주는 싱그러움은
사람을 참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싱그러움을 가슴에 담고 인사드려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이 봄
만끽하고 계시죠?

요즘 많이들 어렵다고 합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일까?’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아끼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무 해가 넘는 긴 시간 동안 민우회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월 꼬박꼬박 1만원을 전해주며 ‘마음만은 가난해지지 말자!’고 말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민우회원분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민우회 사무처는 일체의 정부사업보조지원 없이, 회원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전해주시는 회원 회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막 내딛은 첫걸음이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당장에 사업 진행비가 부족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민 곳을 외면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리의 상상력이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우회는 2009년 3월부터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동길에서, 여성영화제가 진행되는 신촌의 극장에서 시민들에게 “민우회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민우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땀한 시선에 상처받기도 하고 “민우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웃을 일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변화의 걸음을 함께 약속한 110명의 새로운 회원들을 만났고, 고생한다며 오뎅이며, 뽕이며, 김치전을 사다주신 회원분도 계셨습니다. 마음부자인 사람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그리는 유쾌한 변화, 바로 지금!」 회원확대 캠페인은 거리캠페인과 더불어 민우회 회원분들과 함께하는 「유쾌한 변화의 시작! 딱 한 명! 딱 한 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아이쿠야!” 말씀하실 몇몇 회원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해요. 1만원의 돈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닌 요즘, 1만원이 꽤 큰돈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회원분들에게 “좋은 친구 딱 한 명에게 민우회를 소개해주세요.” 커피 딱 한 잔 줄여 “조금만 더 회비

증액해주세요.” 말하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도 여성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세상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일터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는 차별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빈곤의 연속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어 폭력이 되는 세상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 한 회원분과 통화를 하면서 회원과 함께하는 회원확대 캠페인을 말씀드렸더니 회원님은 통화 이후 바로 지인들에게 민우회 소개를 하셨고 7분이 새로운 민우회 회원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하는 일 자체를 의미롭게 하기 위해 친구에게 민우회 회원 가입을 권유하시는 분이 바로 회원님, 당신이어요. 회원님의 진심어린 한마디가 더 큰 의미로 다가간다는 것을 알기에 회원과 함께하는 회원확대 캠페인 딱 한명 딱 한잔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사람의 한걸음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마음만은 가난해지지 말자’ 말하며, 함께 나란히 걸어가기를 원하는 민우회 회원여러분 민우회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세상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조금만 더 마음복자가 되어주세요!

의미로운 일도 하고 마음복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하답니다!

나눌수록 더 커지는 세상,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딱 한 명에게 민우회 회원가입을 권해주세요!

한 달에 한 번 담배 딱 한 갑, 맥주 딱 한 잔, 테이크아웃 커피 딱 한 잔 값 줄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해 존재하는 ‘민우회’라는 저금통에 넣어주세요!

더할수록 더 따뜻해지는 세상,

지금 내고 있는 회비에서 조금만 더 회비 더하기(증액)를 해주세요!

우리, 유쾌한 웃음소리 가득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아갓!

궁금한 점이 계시면 회원희망팀 (여진, 여경, 주가이, 바람)을 찾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tel. 02.737.5763 friend87@womenlink.or.kr





지금부터? 유쾌한 변화의 시작! 딱 한 명!? - 회원을 통한 회원확대 캠페인 관련한 사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희망팀! 4월에 민우회 사무실로 날라 온 **따근따근한** 소식을 말씀해 주세요. **예**, 1,000명의 새로운 회원을 만들기 위한 회원확대 캠페인은 거리에서도, 그리고 매일 우리 공간 어디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민우회 회원님들 때문입니다. 회원님들과 밥 한 끼를 통해서, 전화 한 통을 통해서 듣는 사연은 저희들의 움츠린 어깨를 다시 펴게 하는 커다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연은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최옥희 회원님의 사연입니다.

최옥희 회원은 2009년 3~4월호 <함께 가는 여성>을 보고, 어떻게 하면 회원 확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라남도 광주에 사는 친한 친구에게 안부인사와 함께 민우회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을 직접 손 글씨로 편지지에 한 줄 한 줄 써 내려갔다고 합니다. 와우!! 감동이네요. 편지를 보낼 때 <함께 가는 여성>도 함께 보냈더니 최옥희 회원의 편지 답장으로 그 친구분께서는 바로 회원 가입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 회원님입니다.

누구인지 밝히기를 꺼려하시기에 익명으로 사연을 전합니다. 김○○ 회원님은 동창회 모임(야유회) 때 민우회 생협 물품과 김○○ 회원님이 직접 만든 쿨트 제품을 짚은 메시지와 함께 친구들에게 전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문자로 안부를 물으며 친구분에게 시민단체에 전달하는 1만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면서 민우회 회원가입을 권유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민우회 신입회원이 된다고 합니다. 편지로 사람을 만나기만 마음을 울리게 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친구들을 대하면 커다란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회원님이 가지고 있는 TIP을 전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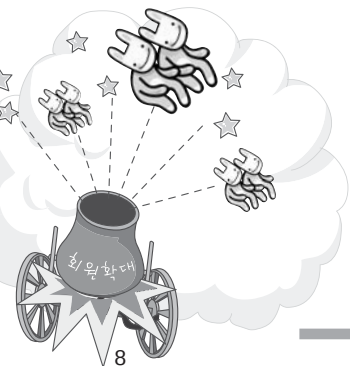
세 번째 사연은 민우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회원님의 사연입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사시는 김금숙 회원은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 본인이 민우회 회원으로서 민우회를 경험해 본 결과 단체 중에서 민우회가 가장 열심히 하고, 여성운동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임을 자랑(?)하였더니 많은 동료분들이 바로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민우회의 다양한 회원 참여프로그램을 알리면서 회원 가입을 한 사례로는 신정동의 엄산 회원은 3·8여성대회 때 친구분을 데려와서 여성의 날도 함께 참여하면서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구로동의 달리 회원은 민우회 신입회원 모임을 알리면서 민우회 회원 가입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은근슬쩍 강하게 권유하시는 상지대학교의 홍성태 교수님입니다.

어느 날 회원 가입한 대학생 신입회원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 축하 메시지와 민우회 가입 이유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였더니,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시민사회 단체 10개의 리스트를 뽑아 주면서 10개 단체 중 꼭 한군데 이상은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 단체 홈페이지를 둘러보고는 민우회가 가장 역동적인 것 같다고 하시며 3분의 대학생이 민우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민우회 회원으로 계시는 강사, 교수 선생님들~! 홍성태 교수님의 사례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4월의 성산동, 유쾌한 뉴스는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민우회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하는 <딱 한명-회원을 통한 회원 확대 캠페인> 관련한 사연을 듣기 위해서 회원희망팀의 발과 귀는 여러분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톡.톡. 해 주세요!**



15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여성주의 관점으로 일상의 성문화를 되짚어보고 자신의 성의식을 점검하고 성찰함으로써 여성의 눈, 피해생존자 중심의 상담, 사건지원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깨트리기 위한 영화관람과 토론, 재밌는 강의를 통해 성폭력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배워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3월 13~27일, <나루> 지하1층 교육장

[꽃보다 평등] 평등한 시민사회단체 조직문화 만들기 집담회

꽃보다 평등은 성별분업, 나이차별, 직급에 의한 차별 등 시민단체 활동가이기 때문에 더 말하기 어려웠던 조직 내 차별, 긴가민가했던 불편했던 경험 나누기/ 변화를 위한 우리의 수다 시간, 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집담회를 환경정의, 참여연대 활동가, 민우회 활동가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3월 25일, <나루> 민우회 회의실

[신입회원만남의 날] 유쾌한 만남, 신입회원님 안녕!



3월 유쾌한 만남은 노래로 만나는 민우회, 형용사로 나를 표현하기,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을 소곤대며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희망의 퀘트조각을 하 나씩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신입회원만남의 날에 동일한 조각들을 만들어 하나의 커다란 희망조각을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4월 유쾌한 만남은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2009, 감독 안해룡, 95분)를 함께 보았습니다. 3월 신입회원

만남의 날과는 다르게 다양한 이유로 모인 우리들의 만남이었습니다. 일본 군 위안부 송신도할머니의 10년간의 법정 투쟁기를 그린 영화로 힘든 상황에 서도 밝고 당당한 송신도할머니의 모습에 덩달아 힘 받고 관심 갖지 못한 우리들에 대한 반성을 하며, 이렇게 좋은 생각과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리였습니다.

3월 26일, <나루> 지하 1층 교육장/ 4월 30일, <나루> 성미산마을극장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 철회 기자회견



3월 20일(금)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에 21% 조직 축소 방침을 최종 통보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점에서 기존의 방침들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3월 24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민우회가 포함된 인권위축소철회공동투쟁단에서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축소방침 즉각 철회,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다음날인 3월 25일 오전 11시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된 여성계 기자회견에서는, 인권위가 축소된다면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현실 또한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삽질' 퍼포먼스와 기자회견문 낭독, 장미꽃 달기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월 24일, 25일 정부종합청사 앞

언론악법반대, 벚꽃축제 집중의 날



언론악법에 반대하는 다양한 단체와 민우회 활동가, 미디어운동본부 회원들이 함께 여의도에 민주주의의 꽃씨를 뿌리고 왔습니다. 벚꽃축제를 맞이하여 여의도에 나온 시민들께 시민단체들이 준비한 희망의 꽃씨를 나누며 언론악법 저지 구호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던 보람찬 자리였습니다.

4월 10일, 여의도 공원

'당신과 그리는 유쾌한 변화, 바로 지금!'

회원확대 거리캠페인 시즌 2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민우회는 새로운 회원 1,000명을 만나기 위한 회원확대 캠페인으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나갔습니다. 영화제 일정 중에 11~12일 주말을 중점으로 영화를 보러 나온 시민 분들과 민우회원 분들을 만나고 온 이번 자리는 '당신에게 빨강이 있다면- 사탕이벤트'를 진행해 빨강을 지닌 많은 분들과 사탕도 나누며 민우회도 홍보하고, 16분의 신입회원도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4월 11일~12일, 신촌 아트레온 1층 민우회홍보 부스

예산분석네트워크 입문교육 :

예산에도 성(性)이 있다 - "성인지 예산학교"



민우회 본부와 지부가 함께하는 성인지 예산분석 관련교육을 입문/심화로 나누어 4/23, 28~29 일 총 3일간 진행했습니다. 지방자치와 예산운동에 관심 있는 민우회원분들과 시민들이 함께한 이번 교육은 향후, 각 지역에서 펼쳐갈 운동의 준비 자리로 더욱 풍성한 사업진행의 기반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4월 23일, 시민공간나루 지하1층 교육장 /

4월 28일~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

눈물의 식발과 로리타의 긴 금발

유선영 ●

눈물과 식발의 한계를 벗어나 공상스럽고, 찌질하고, 지지분하며 시끄럽고 무질서한 그러나 화끈하게 재미있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넘치는 투쟁 방식으로 삶의 조건들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 글에선 지난 4월 잠시 가졌던, 어떤 일들에 대한 불편했던 느낌을 나뭇 반추하면서 한국에서 젊은 여성들이 ‘사회운동’ 혹은 ‘정치투쟁’을 실천하는 방식과 문제의식에 대해 짚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다소 과감한 비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난 4월, 대학생 등록금인하투쟁의 하이라이트가 된 여대생들의 식발투쟁을 일본의 ‘반빈곤네트워크’ 부대표인 아마미야 가린의 운동방식을 가늠자로 삼아 논하고자 한다.

‘눈물의 식발’이라는 표현은 지난 4월 그리고 현재도 계속 중인, 연간 1천만원을 오르내리는 대학등록금 인하투쟁을 관통하는, 당사자 대학생들의 절박함을 표상하는 상징어로 언론에 오르내렸다. 앓던 얼굴의 긴머리 여대생이 학우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를 더 알리기 위해’(4월 10일 식발을 한 홍익대 총학생회장 한아름양의 말, KBS뉴스, 4월 22일자 인터뷰) 감행한 식발의식은 그 자체로 화제가 되었고 다수 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MB의 대선공약이었던 등록금 반값 인하론에서 발원한 대학생의 등록금투쟁은 홍대, 숙명여대, 전국예술계대학생연합의 화장 및 대표직을 맡은 여대생들의 잇달은 식발을

통해 매체의 이목을 끄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듯 보인다. 그러나 학자금대출 상황에 시달리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온갖 곳은 알바로 생활비와 학비를 벌면서 젊음을 소진하는, 심지어 정신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살까지 이르는, 가족의 지원에 한계를 느낀 다수 대학생들의 긴 고통은 별다른 해결의 기미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개그와 시트콤의 소재가 된 유행어 ‘40만 청년실업 시대’는 등록금 투쟁 뒤에 버티고 선 또 다른 암초이지만 등록금투쟁에서 그것은 전면화되지 않았다.

아마미야 가린(34)은 청년실업네트워크 센터인 희망청에서 주최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메이데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내한한 일본 ‘로스 제네’(lost generation)의 대표적 아이콘이다. 그녀는 고졸 학력으로 19~24세 시절 프리타(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젊은이들)생활을 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프리타노조를 설립했으며 현재 프레카리아트(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파견직, 노숙자를 통칭하는 말) 운동을 이끌면서 30여권의 관련 저서를 낸 유명인사이다. 그녀는 염색한 긴 금발머리가 눈에 띄는 소위 로리타 패션(성인여성의 소녀스러움을 부각하는 리본, 레이스, 러플을

강조한 패션)으로 대중의 시선을 끌며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헤드뱅잉하는 무질서한 시위, 즐겁고 화끈하게 싸우는 것을 모토로 한 일본의 프리카리아트들을 조직화하고 있다

그런 아마미야가 한국 젊은이들에 대해 가진 인상은 '위기감이 약한 것 같다'는 것이었다(아마미야에 대한 내용은 시사IN, 2009년 5월 9일자 86호 기사 '가난뱅이들의 메이데이' 참조). 등록금투쟁의 일환으로 삭발을 감행한 한국의 여대생들은 '머리는 다시 자랄 것이고... 돈 걱정 안하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삭발을 했다. 유럽의 1000유로 세대, 한국의 88만원 세대, 일본의 로스제네는 전세계적으로 2000년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대 1%에 들지 못한 20대가 워킹푸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을 표상하고 있지만 최소한 올해 '등록금 인하투쟁'에서 그러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식과 위기감은 약했다. 신자유주의 고도경쟁에 내몰린 학벌사회 대한민국에서 대학졸업장이 인간적인 삶을 약속하는 최소한의 자격증인 것은 인정하더라도 이들의 등록금투쟁은 스펙관리로 대학 4년을 보내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에 순응하는 것과 연장

선상에 있으며 학벌사회의 재생산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 위기감'은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의 삭발에는 젊은이다운 패기와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다. 삭발의식은 눈물과 함께 거행되었지만 삭발은 이미 1895년 고종이 내린 단발령에 함축된 것과 같은 상징성(국가의 도덕과 가치체제에 대한 부정=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의 부정이라는 상징성)을 완전히 소실했다는 점에서 그다지 파급력이 없다. 눈물은 대중의 동정과 관심은 얻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자각하게 하고 공유하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조만간 프리카리아트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위기감에서 공산주의 소설 <계공선>(1928) 열독에 빠지고 공산당 강령에 대한 관심을 늘려가는 한편에서 대학의 공상스러움을 지키기 위해 캠퍼스 곳곳에서 '찌개끓이기 투쟁'을 벌이고 '도쿄 침단문화지구인 롯본기를 불바다로!' 같은 이벤트를 상상해내는 양상과 사뭇 다른 것이다. 로리타 패션과 화장, 긴 금발머리를 찰랑거리며, 시끄러운 음악과 헤드뱅잉으로 시위를 이끄는 반빈곤네트워크의 아마미야 카린은 대학입시에 두 번이나 실패한 후 시작된 오랜 프

리타 생활에서 자신이 노숙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가졌고, 이내 그 공포감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세대적이고 사회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존재조건을 사회체제와 구조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자각과 성찰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상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현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순응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삶의 방식을 적극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대의 다수에게 다가올 미래의 암담한 변화를 고민을 통해 전망하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삶의 조건을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함께 극복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투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가난뱅이들의 패기와 당당함, 그리고 반란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이 50%를 넘나드는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안락한 삶을 꿈꾸는 대학생들의 삭발은 그리고 눈물은 수동적이고 순응적이며 문제적이지 않다. 요는 한국의 여성들도 눈물과 삭발의 한계를 벗어나 공상스럽고, 찌질하고, 지저분하며 시끄럽고 무질서한 그러나 화끈하게 재미있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넘치는 투쟁 방식으로 삶의 조건들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유선영 ● 민우회 이사,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내 몸의 주인은 나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워 성

신이찬희(공기) ●



‘내 몸의 주인은 나’ 거리 캠페인

99년, 나는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두 번째 ‘내 몸의 주인은 나’ 거리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 기획회의를 하면서 “잠 대단한 걸 하는구나”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다양한 성교육 책과 매체들을 통해 성(性)에 관한 정보도 얻고, 중요성도 인식하게 되었지만 그 때만 해도 성(性)이란 사적이고 은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 때문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된 ‘성폭력통념깨기’, ‘월경주기팔찌만들기’, ‘피임기구전시’, ‘콘돔실습’, ‘성교육비디오상영’ 등의 캠페인 프로그램은 공적인 공간에서 시도 되는 새로운 방식의 성교육이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성폭행 해 왔던 의붓아버지 살해사건, 성폭력 피해후유증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19년 전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조교를 성희롱한 서울대 신교수사건 등 90년대 초에도 떠들썩한 성폭력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고,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원했던 많은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은 피해자 상담지원과 더불어 반(反)성폭력운동의 확산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지금도 그렇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뭔가 빌미를 제공했겠지...’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가해행위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여성의 순결이 강조되는 우리사회의 가부장제는 피해자인 여성들을 침묵하게 하였고 피해자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며 피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게 하였다. 때문에 상담소에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며,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배려받기 위해선 내 몸과 내 감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인식, 더불어 사회·문화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성담론과 성폭력 통념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였다.

이러한 기획의도 하에 진행된 것이 ‘내 몸의 주인은 나’ 거리 캠페인이다. ‘내 몸의 주인은 나’ 거리캠페인은 공원이란 열려진 공간에서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진행팀에서 나누어준 부스점검표를 들고 참여하면 부스 담당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性)에 대한 정보를 주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성의식과 성폭력 통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런 걸 왜 거리에서 해요?”라는 사십대 중반의 여성과 “당신은 이런 거 알고 있었어?”라며 피임법을 열심히 듣던 어떤 부부, “이제 월경주기에 대해 확실히 이해했어요~.

학교에서 배울 때 너무 어려웠거든요”라는 청소년들과 “이런 캠페인 언제 또 해요? 친구랑(딸이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텐데...”하는 다양한 참가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다음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되었다.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

“왜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인가요? 당당한, 안전한까지는 괜찮은데... 즐거운은 좀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의 의문과 질문을 자아내게 만들었던 [내 몸의 주인은 나 -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은 캠페인의 슬로건이자 상담소 성교육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상담소의 모든 활동들이 그렇지만 특히 성교육은 자신을 알고, 표현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의식들을 점검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그런 작업들이 힘겨워서 활동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반이다.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성교육과는 다른 방법의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성교육을 준비하며 함께 세미나 했던 많은 활동가들과 상담원들이 경험한 대부분의 성교육은 ‘남학생들이 알아서

는 안 되는 은밀한 것을 위해 교실에서 남학생들을 내 보낸 뒤 검은색 두터운 커튼을 치고(슬라이드 상영을 위해 어쩔 수 없었겠지만) 본 낙태 반대를 위해 만들어진 영상물'이었거나, '여성의 몸은 유리그릇이나 접시와 같아서 함부로 굴리다간 이빨 빠진 접시처럼 쓸모없이 되어버린다'는 내용들이었다.

영상물을 본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도 '끔찍한' 내용이었다는 것과 '난 임신하지 말아야지' 하는 공포감을 가졌고, 자신의 몸인 '여성의 몸'에 자긍심을 갖기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갖게 되었다. 이처럼 공포감을 조성하여 혼전순결을 강요하는 성교육은 성(性)과 여성의 몸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만들고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제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과 공포감은 솔직하고 담대하게 나누어야 할 성적(性的)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고, 성에 대한 무지와 오해, 자기식의 해석이 성폭력 가해로 이어진다는 걸 상담을 통해,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기에 더욱 다른 방식의 성교육이 간절했다.

99년 캠페인을 끝내고 다음 캠페인을 준비를 위한 평가에서 '참여자들이 좀 더 깊이(?)있게 볼 수 있는 자료와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 줄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렇게 상담소의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 소책자가 기획되었다. 소책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그 즈음 성교육을 열심히 하던 단체의 활동가들이 모여 침 튀기고, 열 내며 각 단체의 성교육 목표와 방향에 대해 공유하며

앞으로의 성교육에 대해 논의 했던 간담회(?)였다. 간담회를 통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성적(性的)의사소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다. 상담소에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당당한 성) 자신의 욕구를 잘 알고, 성적의사소통을 잘 하고 피임법에 대해서도 잘 안다면(안전한 성) 상대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배려할 수 있게(즐거운 성)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나를 이해하고 나와 관계 맺는 상대와의 실제적인 소통방법들을 알려줌으로써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성폭력 예방교육도 병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 뒤로 소책자는 성교육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교재가 되었다. 또한 소책자 속에 있는 자료들은 여성·몸·성위크샵과 성폭력피해자 상담, 성폭력 가해자 교육에 사용되었다. 대학교 신입 오리엔테이션과 축제에서도 소책자를 활용한 성교육이 많이 진행되었고, 월경주기팔찌만들기는 학교 성교육선생님과 보건선생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필수 품이 되었다. 그리하여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 소책자는 개정에 개정을 거듭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상담소 활동가들은 오늘도 열심히 주문 들어온 월경주기팔찌를 만들며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 월경주기팔찌 못 만들어보신 분 ~ 상담소의 성교육이 궁금하신분 ~ 지금 바로 상담소로 전화하세요 ~ **업**

신이찬희(공기) ●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과 변화의 가능성에 희망을 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변화시킨 모든 것들에 감사~

작년 이맘때 즈음을 기억하며 촛불이 나에게 남긴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이
 그토록 그녀들을 힘들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장하지 않아도 좋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 1년' 을 이야기 하지만
 고작 1년이 지났을 뿐이거나 혹은 벌써 1년이나 지났을 뿐이다.
 드러나는 촛불의 의미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고 묻고 싶다) 가 없다고 해서
 촛불이 지닌 의미들을 미약하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촛불 1년의 이야기는
 정치적이나 사회적이거나 하는 광의적 변화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소소하게 작년 이맘 즈음 촛불을 겪었던 그녀들에게 묻고 싶을 뿐이다.
 당신에게 잊을 수 없는 촛불의 의미는 무엇이나고- 하나쯤은 있지 않느냐고 말이다.

누군가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유유히 느리게 촛불을 들고 산책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남아 있고,
 누군가에게는 걷는 것의 익숙함을 선사하였으며,
 누군가에게는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온 것이 아닌
 스스로의 목소리를 오롯이 낼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그녀들의 촛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촛불, 잊을 수 없는 그 의미 하나



촛불 산책 하실래요?

바다 ●



촛불관련 기획특집기사가 눈에 띄는걸 보고 ‘별써 오월인가’ 한다. 계절이 바뀌고 해를 넘겨 봄은 다시 찾아왔지만 광화문은 광장 조성 공사다 뭐다 포클레인 소리가 그칠 날 없고 시청 앞 광장은 연중 ‘행사 중’이다.

촛불 1년에 관한 글을 써달라는 청탁에 시쳇말로 ‘멍’ 때린 채 시간만 보냈다. 글을 쓰는 부담감도 있겠으나 ‘1년이 뭐?’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도배했다. 난 여전히 경찰에 욕지거리를 해대며 촛불문화제를 기웃댈 뿐인데.

내 촛불은 어디로 가야하나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혹은 가졌을 거라 생각한 사람들과 함께 도로를 광장을 뒤흔들(?) 그날들은 분명 내 인생에 몇 안 되는 경험으로 남을 것 같다. 보수 논객이나 ‘스·스·스’들이 뭐라고 뱉아대든지 난 그냥 사람들과 거기에 서 있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촛불을 들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전부였다.

별써 일 년인 지금 촛불의 뜨거운 맛을 봤던 MB는 5월이 어지간히 신경 쓰이나 보다. 2명이상 모이기만해도 그 몇 배의 장난감 병정 같은 경찰들이 떼 지어 나타나 ‘해산하시오’ 한다. 요즘엔 고춧가루보다 더 강력하다는 ‘캡사이신*’을 태운 액체로 참가자를 점찍어 연행한다고 한다.

폭력에 유지함을 더한 경찰의 행태에 장단을 맞추다보면 내 경우엔 처음에는 속이 문드러지다가 나중에는 무력함에 빠져들었다. MB가 원하는 게 이런 걸 텐데 계속 당할 수는 없다. 촛불 경력 1년

* 캡사이신(Capsaicin), 이것은 고추 주성분으로 고추에 골고루 퍼져있지만, 특히 꼭지와 연결되어진 고추 속의 고추씨가 달라 붙어있는 부분을 말한다.

차, 털어낼 건 털어내고 촛불을 들고 유유히 느리게 산책하기로 한다. 장기투쟁사업장에서 용산 남일당에서 탄압받는 억울한 사람들 옆에서 가늘고 질기게.

향그러운 가슴 중 한 사람으로 남길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1967년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중)

1967년 군부독재 아래서 발표된 이 신동엽의 시가 세기를 넘어 2009년을 살아가는 내게 위안을 준다.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할 수 있겠냐 만은 1년 남짓한 집권 기간에 수십 년을 후퇴시키는 MB의 숨씨로 말미암아 그 때 그 억압의 시절을 어렵פות이 짐작해본다.

1년 전 시작된 정부의 언론장악, 진보 시민단체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변한 것은 없고 사람들이 무기력 또는 냉소로 일관하는 사이 자유는 조금 씩 빛을 바래고 있다.

직업상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언론은 김연아의 아이스쇼를 침 튀기며 중개했지만 정작 같은 날 노종면 YTN노조위원장의 구속에는 담담했다. 조·

중·동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입을 모으고 도주의 위험을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검찰은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나? 사실 난 정권 따라 논조를 180도 바꾸는 이 언론들을 보수라고 부르고 싶지도 언론이라고는 더더욱 칭하고 싶지 않다. 이들은 다름 아닌 껍데기, 쓰레기 일뿐이다.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인 건 그들을 테러리스트로 매도한 조·중·동으로 대변하는 소위 보수 언론이다. 이것이 정부여당이 끈질기게 방송신문을 장악하려는 이유다.

정당한 이유로 싸우는 언론인의 구속,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무관심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핑크빛 희망사항이라고 해도 뭐 딱히 할 말은 없지만 나는 촛불이 향기로운 흠내음을 풍기며 이어지길 바란다. 나도 그 속의 한 사람이, 알맹이가 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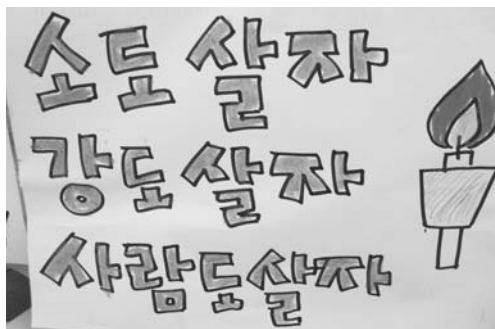
누군가 촛불 1년을 돌아보며 평화문은 촛불이 물려오기 전에도 밝은 곳이었다고, 이제는 사회의 어두운 곳으로 촛불이 옮겨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어느 똑똑하신 분이 선수 치셨다. 저마다의 가슴에 품고 있는 촛불을 꺼내 산책하시지 않을까요? ㄹ

바다 ● 다이나믹 코리아를 실감하는 요즘,
무기력을 견어내고 다시 공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촛불 밖에서 바라본 촛불

광녀니 ●



‘촛불이 나에게 남긴 것’이란 주제로 원고 청탁을 받고 3일을 생각 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촛불’이 ‘나’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는다. 더구나 난 요즘 무기력하다. 소통되지 않는 사회가 힘들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난무하는 현실이 버겁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까지 나와 촛불을 들고 요구했고 성명서, 의견서, 기자회견, 캠페인을 했지만 정부는 들어주지도 바꾸지도 않았다. 두껍고 높은 콘크리트 벽에다 대고 말하는 느낌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 거지??’라는 수많은 물음표들이 현재 내 머릿속에 가득하다. 이런 상태에서 촛불이 나에게 남긴 것에 대해 글을 쓰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나 써야 하기 때문에(^^;) 주제에 약간 벗어나 그냥 막~ 되는대로 써본다.

하나이지 않는 촛불 - 자발적 주체들

‘촛불’은 무엇, 누구일까? 대중 집회를 처음 나온 사람부터 옛날에 운동권에서 날렸다는 전대협(맞나?)까지... 거대한 서울지역의 촛불에 참여하고 싶어 온 다른 지역 사람들, 심지어 촛불 집회를 구경(관광)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수많은 개인들, 온라인 동호회, 직장 동료들, 같은 학교 학생들, 동창회, 예전에 운동했던 그룹,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 촛불 주체들의 정체성은 너무도 다양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와 의견은 더 다양했다. “광우병뿐만 아니라 다른 의제들도 이야기해야한다. 아니다. 광우병사안만 가지고 해야 한다. 매일 촛불만 켜면 뭐하나? 집회는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 찾아보자, 여의도 앞으로 가야한다, 청와대 앞으로 가자, 이순신 동상을 넘어야 한다. 넘어서 뭐하나... 언제까지 집회만 할 거냐(반복되는 되새김질) 등등...”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것은 모두들 동의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논점들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촛불 집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너무도 달랐다.

촛불의 배후세력이 누군지 그리고 초를 무슨 돈으로 사는지 알아내라는 MB의 발상은 위로부터 조직화되는 사회(대중을 동원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이다. 아마 MB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마 진보 운동진영이 더 놀랐을 것이다. 운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노조, 아무도 조직화하지도 않았는데 대중들 스스로 만들었다. 물론 나중에 운동단위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많았던 촛불에서는 한줌

이었다. 후자들이 촛불을 이들이 조직하고 선동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 시민사회단체나 노조 등은 그 많은 사람들을 조직할 능력이 없다. 다 알다시피 단체와 노조가 주체하는 집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이런 촛불에게 기존의 시민사회운동 방식은 한계가 있었고, 하나의 구호 아래 모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라는 나의 생각을 현실로 경험했다.

운동이 즐거운 놀이가 되었다.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피켓과 구호를 만들어 외치고 기본 4~5시간을 걷고, 뛰고 김밥과 물을 나르고, 명박산성을 넘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나르던 사람들이 신기했다. 어떻게

【 기 획 쫓불, 잊을 수 없는 그 의미하나 】

저렇게 열심히 할까? 매일매일 나오는 사람들은 더욱 그랬다. 새벽 3~4시에 집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오늘 집회 이야기를 올리고 내일을 기억하고 아침에 자신의 일터로 학교로 가거나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다운시키라, 조·중·동 및 광고주들에 항의 전화하라, 불매 기업 리스트 외워 물품 골라서 사라, 패러디 포스터, 만화 만들려고 포토샵과 씨름하라, 오프라인 쫓불 집회에 참여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카메라와 노트북 들고 뛰라 정말 대단했다. 그런데 온라인 게시판의 글들은 힘들지만 좋단다. MB 때문에 이런 생고생을 한다고 MB를 욕했지만 재미있어 보였다.

내가 온라인에서 본 사람들과 쫓불집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기존의 시민사회운동에서 부르짖는 대의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라는 거대한 목표의 당위성만을 가지고 참여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자체를 즐기지 않는 한 그들이 만들어낸 유쾌한 패러디와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는 당위성, 책임감, 의무감으로만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었다.

깃발이 없는(소위 어떤 조직에 소속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 스스로 '깃발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깃발을 만들어 모이기 시작했다. 집회에서 과도한 집단문화를 드러내고 그곳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깃발문화를 좋아하지 않는 나로써 이런 역발상은 짜릿했다. 엄숙한 구호와 잘 써진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의 패러디 포스터와 한 줄의 조롱으로 우리의 현실을 꼬집어 설명하고 상대방을 설득했다. 집회에서만 사용되는 구호를 일상의 유행어로 만들었고 그래서 운동이 즐

거운 놀이가 되었다.

나는 운동은 모두가 하는 것이고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노조든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하는 것도 운동이지만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서 매순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고민하고 그것을 일상생활로 담아내는 것이 운동이라고 배웠다. 아마도 그들이 이런 운동을 하고 있지 않나 싶다. 그것도 아주 재미있게...

1년이 지나고 쫓불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직 우린 아무것도 쟁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쫓불이 현실의 정책을 바꾸진 못했지만(쫓불이 바꾸지 못한 것이 아니라 MB가 바꾸지 않는 것이다) 자발적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즐겁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 무엇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일대의 사건임은 분명하다.

아... 그리고 보니 정말로 쫓불이 나에게 남긴 것이 있다.

넘어지는 것이 걷는 것보다 쉬운 나에게,

그래서 걷는 것을 잘하지 못한 나에게,

쫓불은 광화문에서 종로 5가까지 걷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

이것이 나에게 있어 '쫓불, 잊을 수 없는 그 의미 하나'이다. ^①

광녀니 ● 작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로 파견 나가 시청광장에서 서식하였음.
요즘 무력감에 빠져 방황 중



이제 우리들의 촛불을 이야기 할게.

- 누가 우리를
갑툭튀*라 부르는가

윤보라 ●



어떤 기억을 현재와 분리하여 객관의 눈으로 조망하는 일이 가능할까? 어떤 기억을 지나간 역사로 반추할 수 있으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최근 ‘촛불’을 둘러싸고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어떤 사건이 ‘기억’으로 재구성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그저 1년이면 충분한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촛불의 의미를 모색하는 진지하고 촘촘한 논의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대부분 ‘그 해 촛불은 아름다웠네’ 같은 촛불예찬이나 ‘촛불을 들었어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더군’ 식의 패배적 언설이 주를 이룬다.

사실, 그랬다. 지난해 촛불은 정말로 가슴 뛰게 아름다워서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 요동치는 민주주의를 맛보게 해주었다. 우리는 그 광장에서 새로운 질서와 욕망과 정치를 생성해낸 입법자였고, 촛불과 더불어 광장을 메운 것은 거대한 상상력과 유머의 에너지였다.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은 그 열기를 아마 가늠할 수 없을 거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 것만 같았다.

촛불이 ‘ 끝나고 ’ 난 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사실에 진저리치는 것도, 사실이다. 나처럼 워낙 신체 건강한 탓에 입맛이 없다는 말을 한 번도 실감 못한 사람도, 언젠가부터 신문을 펼치면 도저히 음식을 삼킬만한 기분이 들지 않아 밥숟가락을 내려놔야 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촛불의 물결 앞에서 두 번이나 머리를 숙인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자 촛불을 든 손목에 수갑을 채우느라 바빴다. 저녁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믿기지 않는 소식

* ‘갑툭튀’는 갑자기 특하고 튀어나왔다는 것의 줄임말.

“
하지만
광장을 메운
여자들의
행렬은
훨씬 예전부터
준비된
것이였다
”



들을 접하다보면 나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 으로부터
싸대기를 맞는 기분이 들어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정말
얼얼한 것 같은 두 불을 감싸 쥐고 생각했다. 우리가 그렇
게 열심히 촛불을 들었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촛
불은, 졌구나.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제부터다. 가장 맨 앞에서 촛불을 들
던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려줄 때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
다. 언젠가 친한 친구가 밥을 먹다가 “10대 아이들은 학교

로부터 억압 받아 광장에 나왔고, 주부들은 식탁의 안전을
걱정하며 광장에 나왔는데, 이도저도 아닌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 집회에 나오게 된 걸까?”라는 질문을 던진 기
억이 난다. 20대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광장에 ‘갑툭튀’
했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대부분 저런 식의 놀라움이
었다. 비장해야 할 집회를 유쾌한 축제로 뒤바꿔놓은 우리
들을 보고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고, 몇몇 사람들은 집회를
월드컵 응원하듯 소비하지 말라며 짐짓 근엄하게 꾸짖었
다. 아마 그들은 우리가 이상했을 것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가 광장을 점령한 이유를 찾느라 바빴을 것이다. 아니, 갑자기 저 여자들은 어디서 나온 거지? 집에서 밥 할 나이도 아니고, 학교에서 억압받을 나이도 지났는데? 밥보다 비싼 커피를 마시느라 정치엔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예라 모르겠다. 일단 여자니까 태생적으로 먹거리에 예민하다고 치자. 일단 여자니까 거대 이슈보다 생활정치에 민감하다고 해놓자. 어쨌든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잖아.

하지만 광장을 메운 여자들의 행렬은 훨씬 예전부터 준비된 것이었다. 귀여운 후라이드 치킨 그림 옆에 '배운 여자'라는 글자를 깃발에 새기고 광장에 나온 어느 패션 카페 회원들은 (이 모든 사단의 시발점이 된)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나라의 앞날을 걱정(?) 하느라 게시판을 한숨으로 뒤덮었다. 내 피부타입에 이 로션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묻는 게시글 속에서 뉴라이트의 역사왜곡을 성토했던 화장품 카페의 회원들도 있었다. 지난해 초여름을 수놓은 거리의 촛불은 그런 여자들로부터 점화됐다. 모두가 그 핑크빛 깃발을 보고 당황했지만 정작 우리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저항의 방식은 전부터 예비했던 것이다. 그저 게시판에서 놀던 대로, 친구와 문자로 소통하던 대로 거리를 대했고, 그 방식이 곧 촛불의 방식이 되었다.

남에게 혼수 두는 버릇이 아직도 남은 몇몇 386들은 촛불 집회를 두고 세대론을 적용하여 '저항하는 10대 vs 철없고 무기력한 20대' 구도를 만들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혹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그들의 눈에는 이 유쾌한 20대 여자들이 보이지 않았나보다. 그들이 우리를 보지 못하는 사이 촛불에 대한 후일담만 무럭무럭 쌓여갔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촛불의 성패를 둘러싸고 터져 나오는 이야기 사이에서 우리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 상황에 대한 무기력한 패배감 속에서 머뭇거리는 동안 우리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될까봐 두렵다. '그래, 그때 하이힐을 신고 촛불을 들었던 그녀들이 있었지. 그 많던 그녀들은 어디로 갔을까?' 라는 추억만 남게 될까봐 두렵다.

사실 여성들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거리낌 없는 저항의 주체로 있어왔다. 다만 역사를 써온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만 객체로 존재했을 뿐이다. 지난해(그리고 지금도) 거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먼 옛날의 세대가 아니라 피와 살이 돌고 있는 지금 우리, 지금 이 사람들이 아니던가. 다른 시대, 다른 공간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촛불에 대한 기억을 되새김질을 하고 싶다. 광장에 나섰던 우리들이 또다시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촛불 이후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이유를 이야기 하자. 그렇게 터져 나온 우리들의 목소리는, 촛불이 성공했는지 망했는지 그 성과만 기념하는 이분법의 언어 밖에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그 언어 너머의 공간에 새로운 촛불이 켜질지도 모를 일이다. **㉠**

윤보라 ● 달달한 고학생



배우 권해효, 인간 권해효, 재능나눔 권해효

[특별한 만남] 첫 번째 이야기는 2009년 민우회 후원 특별공연 연극<아트Art>의 '규태' 역 권해효 님과의 비형식적(?) 인터뷰의 내용들을 토대로 구성한 것이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의 대학로 어딘가에서 나누던 수다 내용을 담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기대했던 배우 권해효, 인간 권해효, 유난히도 사회문제와 관련한 자리에 얼굴 내비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그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일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아니, 실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를 기대한 우리들이었다.

형 식사하는 그런 인터뷰는 사절이다. 그런 것쯤은 포털사이트를 조금만 뒤적이면 다 나오는 것들이다. 하지만 우린 다른 것을 꿈꾸며 같은 것을 질문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그에게 희망하고 바라는 건 다르고도 같은 무엇이기 때문이 아닐까?

권해효 님을 만나기 100m 전 쿵다쿵다하는 마음으로, 어지간히 어색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러나 끝까지 어색했던 만남...

흔쾌히(?) 민우회 재정사업에 연기와 출연료를 기부하겠다고 해준 그에게 묻고 싶은 게 있었다. 흔히 우리가 '재능나눔'이라고 말하는, 배우로서의 자원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왜 이 자리에 있나요? 타인이 보는 당신은 어떠한길 희망하나요?

그에게는 익숙한 나눔

그는 민우회 후원 특별공연을 함께하게 된 이유를 "한국여성연합의 홍보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멋쩍게 웃음)"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이나 여러 정치성을 띤(?) 행사의 사회자로 무대에서 어색하지만(스스로 그렇게 말했다. 어색하노라)열심히 말하고 외친다. 그러다 TV를 틀면 지섭씨(?)와 함께 의사선생님이 되어있다. 이처럼 그의 면면은 다양하다. 배우가 직업인 그에게 연극<아트>로 민우회 원분들과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로운 좋은 관객을 만나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며 민우회의 티켓파워(?)를 매우 신뢰하고 있었다. 회원분들과 좋은 공연을 나누고 싶어 하는 민우회의 마음도, 공연을 보고 이후의 좋은 관객이 되어있을 우리 민우회원분들의 모습도 그에게는 보이는 듯 했다. 그래서 일까? 다른 두 배우(이대연, 조희봉)와 함께 재능나눔을 하게 된 그에게 나눔은 나눌수록 커지는 익숙한 그 무엇 같았다.

그의 인생 키워드? - 부끄러움/ 합리성

“스스로가 지지치 않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여성민우회 활동가든, 어떤 단체 활동가들이든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스스로의 지침이 아닐까? 반복됨의 지침에 대해서. 매일 같이.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해 왔던 일이고 준비해왔던 일이지만 지지치 않기 위해 제가 저한테 주는 선물인거죠. 가치로 치면 오체투쟁을 가야 하는데, 다른 스케줄과 겹칠 때에 선택해야하는 상황.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여기 안 가면 앞으로 이 대열에 같이 오랫동안 있을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지지치 말아야 겠다.” 나에게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 나름의 기준에서의 합리성을 찾기 위해 고민의 고민을 계속한다는 그는 참으로 멋지다.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웃기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안 느끼면 아닌 거고. 매일 같이 우리는 누가 나를 바라보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씬글라스를 쓰고 다니는 이유는 상대의 눈을 보면서 유일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를 가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바라보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남이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가 만난 그는 남을 의식하기 보다는 그냥 스스로를 믿고 지지치 않게 나를 바라매 사는 이였다. 그래서일까? 그를 가장 기운 나게 하는 말은 그의 아내가 해주는 ‘무조건 당신이 최고야’란다. 계속적인 내면의 고민이 있고, 늘 부끄러워하며 나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권해효’이기 때문에 믿어주는 사람들이 늘 존재하는 것 같다.

그것이 팬이든 친구이든 가족 이든 규정할 수 없는 누군가 이든 간에 말이다. 기꺼이 본인의 재능나눔을 결심한 그리고 바보처럼 미련히도 돈 안되는(?) 일을 하는 그의 지향에 함께해주는 그의 친구들께 그렇그렇한 눈망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짧고도 긴, 엉망이면서도 또렷한 민우회와 권해효님의 특별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다.

사실 그에게 있어 재능나눔이란 특별할 것이 아닐지 모른다. 좋은 관객을 만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일은 이제 당연하리만치 가까이 와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 우리도 좋은 관객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나누자. 작지 않은 돈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민우회를 지지하는 삶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자. 준비-됐나요? 네네-네네네! 준비됐어요! ♪ 📖

민우회와 함께하는 연극 <아트>!

- ★ 연극 <아트>는 유태인계 프랑스 여성 극작가인 야스미나 레자(yasmina reza)의 대표작품
- ★ 7월에 있을 민우회 후원 특별공연에서는 ‘규태’역에 권해효, ‘수현’역에 조희봉, ‘덕수’역에 이대연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연극 <아트>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남자들이 우정 밑에 깔려있는 소심하고 웅졸한 구석을 속사포 수다로 리얼하게 파헤치며 통쾌한 웃음을 자아내는 연극으로,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난 작품이라 평가 받았다. 특히 강한 남자를 선호하고, 남자들 간의 의리는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한국적인 고정관념을 유쾌하고 통쾌하게 깨뜨린 작품이다.

- 홍보글 발췌

※ <함께가는 여성> 뒤표지 안쪽으로 송승 연극<아트>공연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어느새 ‘재능나눔’에 관한 이야기가 ‘후원사업 홍보글’로 변질된 거 같다는::)

한국 연예산업의 희생양 ‘故 장자연’

강현희 ●

왜 유독 여성연예인들은 자살을 선택하는가?

배우 이은주의 자살과 그 후에도 계속되는 여성연예인들의 자살, 그리고 올해 다시 시작된 故 장자연씨의 자살에서 신인배우 우승연 자살까지.

유독 여성 연예인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경찰은 여성연예인들의 자살 배경을 모두 ‘우울증’으로 결론짓는 것은 왜일까?

우울증은 심한 스트레스 또는 사회적,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불안정, 무기력을 의미한다. 경찰들의 말대로라면 왜 여성연예인들은 심리적 불안감과 무기력을 떨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심리적 불안감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스타에 대한 갈망,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중들의 기호, 화려함 속에 가려진 경제적 어려움, 인간적 외로움...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유독 여성연예인들의 자살이 많은 사실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번 故장자연씨 사건은 2002년 방송사PD, 스포츠신문 간부, 연예기획사 간부, 정치인 등이 연루된 대형 연예계

비리가 터진 이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연예산업 구조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왜 여전히 여성연예인들에게는 끊임없이 ‘정상납’이 요구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연예산업의 구조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연예기획사를 통해 연예계 진출의 기회가 주어진다.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을 시장에 내 놓으려 노력하고, 시장에 내놓은 상품은 대중들이 더 잘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에 내놓기 위해 노력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故장자연 사건처럼 ‘상납’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예산업시장은 시장에 나가려는 ‘상품(연예인 지망생)’과 그 ‘상품’을 구매하려는 구매자(광고주나 프로듀서)그리고 상품을 널리 알려주는 ‘홍보자’ (언론사) 그리고 홍보자들과 유연한 관계를 유지해야하는 ‘권력자’ (정치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품을 보고 선택하는 ‘선택자’ (대중)는 이 연예산업구조 속에 마지막 관람자일 뿐이다.



문제는 공정한 캐스팅 기회가 주어지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물 밑에서 캐스팅이 이루어지는 연예산업의 구조와 연예인 지망자가 많아 우후죽순 생겨난 연예 기획사들의 수요만큼 치열한 경쟁의 연예사업의 특성상 광고주와 프로듀서, 언론사 고위관리, 정치인은 '절대 권력자'로 기획사에서 쟁겨야드려야 하는 일종의 VIP들이라는 사실이다.

좋은 배우나 연예인을 키워내는 것이 기획사의 주 업무지만 기획사의 존치여부와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VIP들의 요구를 기획사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시장경쟁의 구조 속에서 일부 여성연예인들은 VIP를 위한

**한 개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故장자연씨의 유서와 사건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여성연예인들의 '성상납'은
기획사에 의해 또는 또 다른 권력에 의해
강제로 요구된다는 것이고 이런 요구가
결국은 여성연예인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이다.**

접대부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연예인, 즉 스타가 되기 위해 본인들이 알아서 '상납' 하는 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일부 대중들이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스타를 갈망하는 한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산업구조 속에 여성은 주체가 아닌 객체로 밖에 남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故장자연씨의 유서와 사건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기획사에 의해 또는 또 다른 권력에 의해 강제로 요구된다는 것이고 이런 요구가 결국은 여성연예인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이다.

故장자연 사건이 채 정리도 되기 전에 우승연이라는 신인 배우가 다시 자살을 선택했다. 그리고 경찰은 故우승연의 자살을 '우울증'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故장자연의 시신이 발견된 후 전 매니저가 유서와 상납리스트를 세상에 알리기 전까지 故장자연씨의 자살을 '우울증'으로 발표했던 경찰을 생각하면 과연 故우승연 역시 '우울증'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눈을 가린 경찰과 입을 다문 언론

정치적인 문제에는 치밀하게 모든 증거자료와 사건 당시 관련자들을 포섭하고 수배하던 경찰이 유독 故장자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휴대폰 기록만 추적해 봐도, 기획사 앞 CCTV만 조사해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경찰은 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동자인 김대표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마저도 눈을 감고 보지 않는다.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확인하지 않았으며, 확인된 사실에도 눈을 감는 게 우리의 경찰이었다.

그리고 언론은 입을 다물었다. 민주당 이종걸국회의원이 故장자연리스트에 조선일보 사장과 스포츠 조선 사장인 방씨부자의 이름을 언급했지만 어느 신문에서도 조선일보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며 방씨부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절대권력의 하나인 조선일보에게 밀 보이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언론들은 그렇게 입을 다물고, 이제는 故장자연이라는 이름이 신문 지면과 방송화면에서 사라지고 있다.

故장자연씨의 죽음의 의미는?

故장자연 사건은 한 여성이 스타를 갈망해 성을 상납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남성중심, 성적 차별, 권력구조, 경제적인 문제, 상급자와 하급자관계) 속에서 처참히 유린당한 인간의 인권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2의 장자연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리스트에 올려진 대상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죄에 따라 처벌했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절대권력자들은 2002년 연예계의 대비리를 시간 속에 흘려보냈듯 故장자연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사라지게 하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2002년처럼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대중과 인식을 같이할 것이고, 연예사업의 구조가 변화할 수 있도록 연예산업 종사자들과 시민단체, 법조인, 학자등과 연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

강현희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팀장



'멋진 하루'는 관심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739-8858 / 하나(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로 놀아요!

매 달 세 번째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멋진 하루〉

멋진 하루! 놀거리들 (가안)

- 06/16 섹슈얼리티 영화 상영 (숏버스?)
- 07/20 내 몸으로 떠나는 타투 여행, 두 번째
- 08/17 옷차림-성폭력, 전혀 상관없는 관계
- 09/21 자기방어훈련 맛보기
- 10/19 연애 성도 대회
- 11/16 섹슈얼리티 숨은 '그림' 찾기
- 12/21 외모 지상주의 연발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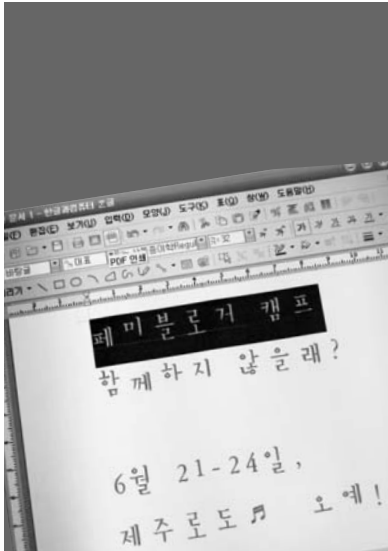
안녕? 난 '섹슈얼리티'야. ^-^ 사람들이 날 설명하는 말은 참 다양해. 아주 단순하게 '성' 이라고 하기도 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구체적인 성행위뿐만 아니라 저마다 각자 다르게 가지고 있는 성적 환상과 욕구, 감정, 생각들을 포함 한 다'고 하기도 하지. 너에게 난 어떤 존재이니?

혹시 내가 낯설다면 곰곰이 기억을 떠올려봐. 오늘 아침 외출준비를 하며 넌 무의식중에 날 신경 쓰며 옷을 고르고, 화장을 했을지도 모르지. 거드랑이 털을 밀거나 수염을 깎았을 수도 있고 말이야. 점심시간 수다 거린 뭐였어? 같은 집단 내 누군가의 연애 소문? 어제 본 드라마에서 그 배우가 얼마나 섹시했는지? 저녁엔 애인과 야한 영화를 한 편 보다가 그냥 잠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체변화에 대한 곤혹스런 질문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지.

그거 봐, 난 너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늘 너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래서 나를 알고 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일은 너와 너를 둘러싼 주변을 보다 이해하고 살펴보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그런데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는 늘 나에 관한 얘기들을 하더라.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하고 지원하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에 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학교 성교육이나 가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여성들이 나를 당당하고 즐겁게 여길 수 있는 '몸/성 워크숍'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는 거래. 그리고 성폭력 문제나 상담소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랑 더 친해질 수 있도록 '멋진 하루'를 마련했던 말 씀! 매 달 세 번째 화요일마다 7시 30분에 영화도 보고 수다도 떨고 그림도 그리면서 너와 나에 대한 애길 마음껏 떠들어보는 자리라고 해.

사람들의 머리 속, 생활 속, 문화 속, 제도 속에 쑥쑥 자리 잡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너 스스로를 다시 보게 되는 재미, 느껴보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멋진 하루'에서 만나자! 너와 함께라면 분명 더욱 '멋진' 하루가 될 거야 ^^



민우회와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이 만났을 때

[특별한 만남] 두 번째 이야기는 민우회가 새로이 만나게 된, 만나게 될 그/녀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올해 새롭게 다짐한 온라인에서의 여성주의 퍼트리기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야기는 여성학 강연, 페미블로거 캠프, 메타블로그 활동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짜잔-

웹 2.0세대, 여성주의를 접속하다

강원도 ○○대학교 여성주의자 재영은 요즘 고민이 많다. 여성주의의 매력을 차차 알아 갈수록, 페미니즘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된다는 것을 느낄 때 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픈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학교에서 포스터 한 장을 발견한다.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주의자, 여기여기 모여라!” 전국의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주의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광고, 그녀는 감탄한다. 아, 이럴수가! 전국 대학 여성주의자들이 제주도에서 만난다고? 좋지 아니한가!

2007년, 민우회가 스무 살을 맞이하던 때-민우회는 새로운 에너지를 함께 나눌 그/녀들을 만나기로 결정하였다. 2년여의 시간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대학생들을 직접 만나 그/녀들의 욕구도 조사하며 차근차근 마주침을 준비하였다. 드디어 2009년 올해 만남의 장이 “웹2.0세대, 여성주의를 접속하다!”라는 이름으로 열리게 되었다.

오해풀기와 약속잡기뿐인 연애, 너는 어때? 찾아가는 여성학 강좌

“웹 활용이 능수능란하며, 인터넷을 활용하여 1인 미디어를 만들어가는 세대(웹2.0세대)들이 여성주의를 만난다면?” “여성주의가 웹을 만난다면?”이라는 고민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이번 사업은 세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대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직접 만나기 위해 ‘오해풀기와 약속잡기뿐인 연애, 너는 어때?’ 라는 제목으로 찾아가는 여성학 강좌를 진행하였다. 성공회대학교 여성주의 저널 앤[n],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경상대학교 총여학생회와 강좌를 함께 준비하며 ‘얼굴 맞대기’를 진행했다. 강좌에 과연 사람들이 많이 올까? 걱정전뜩, 부담백배!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연애’라는 화두로 여성주의에 기반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맺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던 우리들의 ‘얼굴 맞대기’ 자리는 한 마디로 ‘후끈’하였다.

물 만난 물고기처럼~

여성주의자, 제주도에서 만나다. - 페미블로거캠프

둘째,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성산동 <나루>3층 민우회 사무실 회의실에서는 속닥속닥, 쿵쾅쿵쾅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대학 내 여성주의자 네트워크 날래, 잇지, 미도, 늘꿈, 무사고, 헤라 그리고 민우회 바람과 여경은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을 상상하고 기획하느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누고 있다. 누군가는 소곤소곤 다락방*을 운영하며 앞으로 이 온라인커뮤니티가 '여성주의'로 풍성하게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되기 위해 이번 캠프에서 충족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말하며, 누군가는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주의자들의 온라인상의 새로운 활동 거점을 상상하며 캠프준비에 정신이 없다.



대학생 민우회원 여러분 -

여성주의와 웹의 절묘한 만남, 페미블로거캠프에 놀러오세요!

우리는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페미블로거캠프에 '민우회원 여러분, 우리 함께 해요!♥'라고 속삭이고 있는데, 잘 들리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대학생이라면, 그리고 여성주의자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 '페미블로거캠프'. 페미니즘을 내 삶의 활력소로 삼고 있는 그/녀들과 새로운 내일을 상상하고 기획하는 공간, 당신과 함께라면, 민우회와 함께라면 꿈은 이루어진다! 생각만으로도 즐겁지 않나요? 페미블로거캠프로 고고싱!

페미블로거캠프 이후 -

여성주의 놀이터, 메타블로그에서 신나게 놀다!

셋째,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힘을 주고받았던 시공간. 페미블로거 캠프, 아마도 우리는 제주도에서 있을 일을 단지 지난날의 추억으로만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페미블로거 캠프참가자들은 캠프에서 발견했던 여성주의 운동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각자의 공간에서 실험하고 실현하고 있겠지?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건강한 그/녀들의 목소리를 발현하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내고 있겠지? (마구마구 상상하고 기대하는 우리들-) 페미블로거캠프 이후 동네 방네 언니들이 모두 모일 여성주의 놀이터, (민우)메타블로그에서 우리는 머지않아 신나게 놀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대하시렵! 곧 만나요! 우리, 온라인에서도! **얍**

* 현재 고려대학교 녹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싸이월드 클럽으로 여학생들의 일상 다반사가 오가며, 고민과 위료가 존재하는 온라인공간.

민우회 신입회원을 소개합니다!

2009년 3월까지 가입한 신입회원 중에서

〈여성주의, 달콤한 위로 : 신입회원 여성주의 세미나 모임〉을 함께 한 회원들입니다.

이 세미나 모임은 여성주의, 사회적 소수자, 노동법, 성폭력 등을 주제로

총 5주 동안 진행됩니다. 2차 모임은 6월 10일에 시작합니다!

[신청: 회원희망팀 tel. 02.737.5763]

신입회원에게
물었습니다~

- ① 이름 혹은 별칭 (그 이유)
- ②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있는 것은? (재능, 물품, 기타)
- ③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 ④ 민우회에 대한 인상은?

가이드 정 >>>>> ① 가이드 정은 필명인 가이아 헤드의 약자와 실제 성(性)인 '정'을 결합한 것 ② 창의적인 대안과 그것을 담은 글 ③ 다수의 집필을 완성한 저술가 ④ 활발하고 시크한

나무 >>>>> ① 스스로 나무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나무가 참 좋아요!!! ② 대화(서로를 인정하기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 차량??? ③ 단정 지을 수 없다. 다만 지금보다는 많은 일들을 좀 더 즐겁게 그리고 무리되지 않으면서 하고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천해가며 살아가고 싶다. ④ "앗! 이걸 아직 보류!!" 라고 쓰고 나서 생각이 나는 건, 난 그냥 제게 보이는 민우회의 모습들을 그냥 민우회의 모습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듯이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듯이, 그러한 것 같네요. 앞으로 더 많이 민우회를 알게 될 테고, 민우회라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저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래 >>>>> ①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어린 시절 학용품에 많이 등장한 캐릭터 금다래, 신머루 캐릭터에서 따온 별칭이에요. 순박하면서도 촌스러워 보이는 캐릭터 모습이 맘에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향하고 싶은 이미지라고나 할까^^ ② 몇 권의 책들,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 ③ 어디 두메산골에서 고사리 뜯으며, 산야초 효소 만든다고 산, 들로 헤매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④ 가족적이면서 친밀한 느낌, 신입회원

에 대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지민 바람 >>>>> ① 바람을 하고자 합니다. ㅎㅎ 왜냐면 갇힌 세계의 답답함을 바람이 열어주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저로 될 듯싶어서요. 자연의 여러 가지가 모두 다 위대하지만 바람이 갖는 위력은 무엇보다 바꿀 수도 없고, 줄 수 없을 만큼 크니까요. ② 미약하지만 저의 재능은 따뜻한 마음이구요.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따뜻한 제 마음입니다. 왜냐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도 고가의 값비싼 물건일지라도 마음이 속해 있지 아니하다면 나눌도 어렵고 자신의 것이 되기에 시간도 걸리니까요. ㅎㅎ ③ 10년 후의 제 모습은 그 땀 독립된 저로 제 어깨에 올려진 저만의 책무를 내려놓고 있을 듯 하구요. 그로인해 바람처럼 바람인 냥 저를 필요

로 하는 곳이 있다면 주저함 없이도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❹ 민우회에서의 첫 만남은 수화기 안에서 들렸던 낮고 조용한 음색의 활동가 목소리였는데 그 소리에서 저는 민우회라는 곳에 방문을 하고자 마음을 다쳤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소리는 정겨움과 관심이 섞인 목소리로 민우회로 가도록 했거든요. 첫날 첫 번째 모임에 저는 지각을 하여 걱정을 했는데 앉아보니 젊은 여성분들이 여성문제에 심도 있게 접근해 보려 애쓰는 공간임을 기억하게 하였고 결석하는 수요일의 일정을 비울 수 없는 것이 저로써는 매년 안타까웠습니다. 여진선 생님을 비롯한 다른 선생님들과의 인연을 닿게 해준 민우회를 사랑하고 그 모임을 사랑합니다.

새음 >>>>> ❶ 새벽 내음이란 뜻이에요. 새내기 때 이미지로 별칭지어주기 하면서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 이젠 제 스스로 제 이름을 짓고 싶어요~ ❷ 스윙댄스를 추고 있어요~ 완전 몸치에 춤출 때 간지는 안

나지만, 춤을 추면서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 및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요 ㅋㅋ ❸ 10년 후를 고민하다 1년 후를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된지 어언 몇 년... 10년 후에 또 다른 10년 후를 준비하고 있을 거 같아요~ 언니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꿈인데, 꿈이었는데... ㅠ.ㅠ ❹ 회원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싶을 정도로 탄탄한 회원 관리에 훈훈하고 따뜻했지요!! 히힛! 점심시간이 끝나가요 ㅋㅋ 오늘은 연장근로 없는 하루로 핫팅!!

송주라 >>>>> ❶ 이름을 쓰고 있어요 ❷ 사소한 정보라도 여러 사람에게 알려려고 노력하기 ❸ 든든한 민우회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민우회 30주년 호호) ❹ 활기 넘치는 에너지가 있는 즐거운 곳이구나!

와와 >>>>> ❶ 중딩 때 치와와 닮았다고 와와였는데. 고딩 때도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와와야' 하고 누가 불러주면, 속에

서 웃음이 흘러나와서 들을 때마다 웃음이 흘러나오는 것이 좋아서 와와로 정했습시다! ❷ 웃음? -_- :: ❸ 31살이니까... 뭐... 현모양처는 아니고... 뭘라나... 후... 내일 내가 뭘 하고 있을지도 못 그리겠는데 혈혈. 그러본다면...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철 안든 어른, 떠돌이 어른, 유쾌한 어른. ❹ 상냥하다. 부드럽다. 란 인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리이지만. 언제 어떻게 변하실지들. ㅋㅋ

행 >>>>> ❶ 제 이름이 원래 '혜영' 인데, 빨리 발음하면 '癒'이 되요. '癒'은 좀 어색해서 '행'으로 자연스럽게 다듬었는데, 한문 行(행)하고도 발음이 우연하게도 같아서 더 '행'이라는 별칭이 마음에 들어요. 성격이 방콕스타일인데, 민우회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바꾸고 싶어요. 많은 여성들과 만나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니는 행(行)이 되고 싶어요~ ❷ 전문 자격증은 없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의 안마와 지압을 도맡아서 해 왔어요. 제 지압을 받을 분들이 별 불만이 없으신 걸 보니 솜씨가 괜찮은가 보지요~? ❸ 멋진 페미니스트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어요. 제 자신도 멋진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 조카에게 멋진 페미니스트 고모가 되고 싶어요. 10년 후에는 제가 10년 동안 정들인 페미니스트 모임에 제 조카를 초대하고 싶어요. ❹ 정말 든든해요. 예전엔 혼자서 두려워했던 가부장제 세상에 당당히 맞설 자신감이 생겼어요. 민우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어요. 민우회! 아자! 함



친해지길 바래!
나루人들의
볼살 떨리는



김희영(교감) ●

반년이 지난 마포시대

이럴 수가. 벌써 나루 생활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출퇴근시 다른 단체 활동가들과의 어색한 마주침과 머뭇머뭇한 인사가 이제는 꽤 자연스런 일상이 되고 있으니 6개월 살았다할만 하겠다. 평동 살 때랑은 만나는 사람의 폭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다보니 적응하기 꽤 힘들 것이라는 연초의 예상은 금세 뒤집혔다. 식신본능, 여성인권보다는 주로 먹는 것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나는(아직 구강기다) 이제 서대문구를 떠나 마포구의 맛집 검색이 퇴근 전 일과가 되어 버린걸 보니 이제 마포시대 적응 완료다. 다들 뭐 한 두개씩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겠으나 나에게도 나름 나루 생활 에피소드가 있는데 2층 환경정의 화장실에서 변기가 막힌 걸 확인하고 급하게 도망쳤던 일(지면을 빌려 사과를. 정말 죽고싶었어요.)이나 성미산 소극장에서 몇 년 만에 친구(공연 보러 온 것 같은데 웬만하면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를 만나 서로의 직업 세계를 탐색했던 일이랄지. 분명한건 좋은 나쁜든 평온했던 평동과는 달리 훨씬 더 역동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거다.

양평에서 만난 나루인들

나루 활동가들의 얼굴이 이제 구별은 되겠다 싶었던 4월, 민우회를 포함한 환경정의, 녹색교통,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가들과 양평으로 1박 2일로 워크샵을 떠났다. 워크샵 전 날까지도 당일의 출발 시간을 30분 앞당겨 공지한 민우회 준비팀 광년과 은날의 치밀한 작전을 뒤로하고 조금 아~주 조금 늦게 드디어 양평으로 출발. 들뜬 마음에 수다로 범벅된 버스에서 나몰라라 엎어져 자고 일어나니 양평이다. 넓은 잔디와 우거진 나무, 강도 흐른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나루 운동회. 뭘 여기까지 와서 몸으로 경





쟁해야 하나, 투덜대던 속마음과 달리 '행동' 팀에서 미친 듯이 뛰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 (풍선을 발목에 매달고 서로의 풍선을 터뜨리는

게임 때 몰래 풍선을 작게 불다가 걸린 일은 엄청난 항의를 받았지만 처장2인과 소장1인이 포함된 '행동' 팀은 그날 1등 먹었다.) 진정 게임을 승부여부에 집착하던 팀에 소속된 죄로 평생 처음 해봤던 꼬마야꼬마야 게임 때는 이겨야 한다는 집념으로 가득 찬 서글픈 모습이 사진에 잡히기도 하였다. 또 나를 살펴야되? 중얼대면서 시작된 민우 활동가 은지의 MBTI 강의 때는 나루 사람을 MBTI 유형으로 기억해내는 재미를 제공하기도 했다.(아 저 사람은 isft 었지. 아 저 사람은 풍운아. 어머 저이는 보헤미안 이러면서) 늦은 시간에는 각 나루 단체들의 사업 내용이나 팀 명 등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보는 나루 골든벨이 진행되었다. 시민행동 오관영 처장의 별칭을 맞추는 것이 1차 질문이었는데 한자로 청과 우라는 힌트에 당당하게 "맑은 소"라고 답해(정답은 푸른소였다.) 푸우, 청소, 푸른 비 등 수많은 오답자와 함께 탈락되기도 하였다.

워크샵 기간 동안 아침과 저녁을 가로질러 밖에 나가 보면 뛰고 있는 멤버는 대부분 환경정의 활동가들이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족구나 축구, 발야구를 하는 듯 했다. 소위 '공만 던져주면 논다'는 환경정의에 대한 소문을 증명이라도 하듯 소처럼 들판을 뛰어다니는 환경정의의 운동(exercise)파들의 모습은 대부분의 워크샵 기간 동안 방안에서 각종 게임과 TV 시청이 주요 프로그램이었던 민우회

인으로서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애석하게도 닮고 싶진 않았다. 녹색교통 님들은 사실 드문드문 계단에서 만났을 때의 강렬하거나 푸석했던 인상과는 달리 화려한 수사를 담보한 진행능력을 가진 활동가와 나루 골든벨 때 수많은 힌트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오답으로 독특한 캐릭터를 드러낸 m처장의 모습을 보며 의외의 분위기를 느꼈고, 층수 차이가 커서 마주침이 덜했던 시민행동 활동가들의 마인드와 자유로운 영혼은 뒷풀이 시간 소소한 대화들로 어렴풋이 느끼기도 하였다.

오늘도 나루

〈나루〉라고 하는 성산동 언저리의 건물 안에 살고 있다는 물리적 동질성이 얼마나 서로를 묶을 수 있는 끈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평소 낯선 이와의 동행을 진정으로 달가워하지 않는 나의 성격에 비춰보면 훨씬 더 까슬까슬하게 이 공간의 사람을 대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워크샵을 간다는 업무연장성 관계맺음에 귀차니즘이 슬쩍 작동되었던 것도 있었고 말이다. 연대라는 거창한 이름을 제외하더라도 같은 공간에(물리적인 것을 넘어) 있다는 것이 주는 일상성의 힘을 믿어야 하는데도 잘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그렇다.(워낙 의심이 많은 성격-_-) 그래도 나루 워크샵으로 간단한 인사만으로 알 수 없었던 의외의(?) 캐릭터들을 보니 이제 조금은 볼살 덜 떨리면서 인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확실하다. 사실 그걸로 워크샵 목표 완수다. 여전히 가끔은 시선 흐리거나 매번 계단을 오가며 만나는 많은 사람이 부대끼지만 그거야 성격인데 어찌겠냐만은. **함**

김희영(꼬깁) ●

마포에 맛집 있으면 알려주세요. 먹는 걸로 풀고 있는 요즘.(매번 그랬나)

생애전환기 이후에 보이는 것들

권수현 ●

몸의 구석구석에서 퇴행성 질환의 징조가 보이고, 월 좀 해볼라치면 몸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는 시기에 진입해서 그런 것일까. 최근 접한 책이나 영상물엔 유독 '죽음'을 주제로 한 것들이 많았다. 일본 드라마 「바람의 가든」(2008),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의 『죽음과 죽어감』(2008, 이레), 도리스 되리의 「사랑한 후에 남겨진 것들」(2008), 그리고 오즈 야스지로의 「동경이야기」(1953)에 이르기까지 어쩌다 보니 내가 고른 텍스트가 죄다 죽음을 앞 둔 노인이나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사랑한 후에 남겨진 것들」은 올 들어 지금까지 본 영화 중 단연 으뜸이었다. 영화를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여운이 한동안 지속되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새삼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 줄거리인 즉, 시골에 사는 노부부가 대도시에 사는 자녀들을 방문하러 갔다가 부인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설정이다. 영화의 구성은 부인의 죽음을 기점으로 아내의 관점에서 다뤄진 전반부와 남편의 관점에서 다뤄진 후반부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전반부에서 아내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남편과의 이별을 준비한다. 남편의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거울삼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인지, 늙은 아내는 아내로, 세 아이의 어머니로 살아가면서 포기했던 것들을 떠올린다. 흰색의 얼굴 분장을 한 채 몸짓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일본의 부토 댄스는 그녀가 자신의 생에서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로서가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서 열망했던 어떤 것을 상징한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부토 댄스 공연을 관람하고자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공연장 밖에서 그녀를 기다린다. 그녀는 부토 댄스가 상징하는 어떤 결핍, 그로부터 기인하는 그리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 채.

후반부에서 홀로 남겨진 남편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갑작스레 모든 게 낯설어진 공간을 헤매기 시작한다. 부인이 떠난 후 세상은 이제 그에게 상실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해 떠도는 길 잃은 배처럼, 그는 바쁜 도시 생활로 인해 혹은 해묵은 감정 때문에 자신을 외면하는 자식들, 그

리고 아내가 평생 그리워했던 일본의 낯선 도시를 배회하면서 아내의 흔적을 찾기 시작한다. 그는 아내의 유물을 몸에 지니고, 그녀가 사랑했던 일본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와의 만남을 시도하는 것이다.

영화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노부부의 '그리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아내가 떠난 세상에 홀로 남겨진 남편의 그리움이 더 절절하게 와 닿았다. 떠난 사람보다 남겨진 사람의 상실감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내의 그리움과 남편의 그것이 전혀 다른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내의 그리움은 자신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열망과의 '만남'이기에 무언가가 채워지거나 충족되는 듯한 느낌을 전해준다. 반면 남편의 그것은 '아내의 죽음'이라는 갑작스런 상실, 익숙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시공간이 주는 허전함, 당혹감과 맞닿아 있기에 더욱 깊고 크게 다가왔다.

영화의 템포는 자극히 느리다. 영화 속 시간은 세상의 속도와 낯선 공간을 버거워하는 노인의 관점을 따라가면서 아주 느리게, 천천히 흘러간다. 여백이 많은 영화다. 그 여백들 사이로 노부부의 감정의 결이 섬세하게 읽힌다. 누구나 영화 속 특정 장면에 감정적으로 몰입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주인공 한석규가 홀로 남겨질 아버지에게 TV 리모콘 작동법을 알려주는 장면, 깊은 밤 이불을 뒤집어쓰고 숨죽여 흐느끼는 장면을 보면서, 가까운 사람을 여인

적이 있는 사람들만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을 느낀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사소하고 일상적인 장면들이 가슴 속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킨다. 함께 떠났으나 홀로 돌아온 집에서,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면서 뭘 할지 몰라 우두커니 앉아있는 장면, 낯선 도시에서 어딘가로 향하기 전에 자신이 있던 곳 어딘가에 손수건을 묶어두는 장면 등, 일상적이고 소소한 장면들이 잔잔하고도 깊은 여운을 남겼다.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다.” 일본 드라마 「바람의 가든」에 나오는 대사이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삶’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보니 죽음을 다룬 영화들 중에는 유독 템포가 느린 것들이 많다. 「느림과 여백」의 미학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살아있다’는 감각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다. 생애전환기를 넘어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사뭇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된다. “이 생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는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라는 것. ‘사랑한 후에 남겨진 것들’, 제목에서 어딘가 쓸쓸하고 외로운 느낌을 주는 이 영화는 그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느림과 여백’의 미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⑤

권수현 ● 자신의 장점을 아주 잘 아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녀



왼쪽부터
『죽음과 죽어감』
『동경이기』
『사랑한 후에 남겨진 것들』
『바람의 가든』

날아라, 갈치~! 초보아빠의 육아휴직 이야기

박성우 ●



갈치가 막 잠이 들었습니다. 갈치가 이렇게 낮잠을 자주는 2시간이, 둘이서 함께 하는 하루 중 유일한 제 자유시간입니다. 보석 같은 시간 이죠. 간혹 과일장수 트럭의 요란스런 확성기 소리에 갈치가 중간에 깨기라도 하면... 정말이지 그 속상함은 아... 생각만 해도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 “엄마가 싫어, 아빠가 싫어?” “아빠!”

갈치는, 태어난 지 만 19개월이 조금 더 지난 제 딸입니다. 본명은 “가윤”인데 저희는 별칭인 “갈치”라고 부릅니다. 두발로 걷기 시작한지는 이제 갓 5개월이 넘었고 밥은 숟가락대신 젓가락으로 쥐어만 잘 먹고, 얼굴은 제 손바닥만 하고 키는 겨우 80센티 정도 되는, 정말 귀엽고 예쁜... 참 작은 사람입니다.

갈치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불어 갈기도 하고 중국어 갈기도 한 말로 종알종알 의사표현을 합니다. 얼른 갈치랑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너무 신기할 것 같습니다.), 갈치가 하는 말을 알아들 수가 없어서 갈치한테 미안하기도합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만큼은 발음이 정확하답니다. 그 역시도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지만 말이죠. 저랑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서 그런지 “엄마” 보다는 “아빠”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제가 갈치엄마 보란 듯이 “갈치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면 갈치는 씩씩하게 “아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갈치엄마가 갈치에게 묻습니다. “갈치야, 엄마가 싫어, 아빠가 싫어?”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갈치는 역시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아빠!”

에 키우는 아빠가 느끼는 몇 가지 불편한 시선들

육아휴직을 시작한지 8개월째에 접어들습니다. 놀이방에 보내기에는 너무 이른 듯 했고, 부부가 다 직장생활을 하니 돌아가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제 직장에는 기혼 출산 남성 상근자들이 모두 육아휴직을 해온 전통 아닌 전통도 있고 하여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결정하였지만, 실은 다시 군대 가는 심정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다가 제 일정과 제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무료함과 갑갑함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만(갈치는 오리새끼마냥 저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화장실에도 당근 따라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갈치랑 씨썬썬~를 하면서 큰 볼일을 보고, 다리로 그네타기를 해주면서 머리를 감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사와 육아생활에 큰 어려움과 힘듦은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우리사회의, 뭐랄까... 의식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너무 척박한 환경임을 느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외부에서 오는 답답함이 오히려 육아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요소가 종종 돼주는 것 같습니다.

장면 1 작년 11월에 망원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짐센터 팀장님과 인사를 나누다 제가 육아휴직 중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정말 근심어린 표정으로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 “저런... 얼른 좋은 직장 구하게 되시길 바래요” – 멋쩍은 웃음으로... 그게 아니구요~

장면 2 갈치랑 동네 소아과에 처음 갔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엄마들과 아기들을 한자리에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엄마들끼리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약간은 신기한 눈초리를 받기도 하고... 원래 숯기가 없기도 하고 괜히 더 머쓱해진 저는 저를 닮아 역시 숯기가 없는 갈치랑 가만히 병원 한 구석에서 조용히 꺼안고만 있었습니다. – 뭐, 숯기 없는 아빠를 만난 갈치만 불쌍하죠~

장면 3 유모차 끌고 나온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 끼기도 쉽지 않고... 저야 괜치지만 친구라고는 저밖에 없는 갈치한테 너무 미안해서 구청이나 백화점에서 하는 유아 교육프로그램이라도 가볼까 하고 홍보지를 뒤적여봤습니다. 근데 제목부터가 이렇습니다. “엄마랑 아기랑 – 엄마와 함께 하는 유아 감성 발달 놀이학교” – 아빠가 와도 안될 건 없다고 하긴 합니다만~

장면 4 육아정보를 나눌 친구가 없는 저한테 인터넷은 정말 보물창고입니다. 어느날 규모도 크고 내용도 엄청 풍부해 보이는 육아 카페를 발견, 기본 마음에 회원가입 버튼을 열린 클릭하였습니다. 그

런데 이런 글이 뜨네요. “이 곳은 육아정보를 함께 나누는 엄마들의 공간입니다. 남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아, 나도 주부라고요~

부모가 함께 자식을 낳았으니 굳이 구분할 것 없이 같은 모습으로 함께 키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싶은데... 엄살 좀 피우자면, 아빠가 애기 키우는 게 엄마들보다 더 힘든 세상입니다.^^;

갈치야, 우리 재미있게 잘 지내보자구~

세상에 어느 경험 속엔들 배움이 없었습니까만, (누구는 육아휴직 1년간이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365일’ 이었다는데... 솔직히 그 경지까지는 도저히 동화되기 힘들을 먼저 밝히겠습니다만),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을 많은 의미와 소소한 소중함들이 분명 제 삶의 큰 자양분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11시간의 진통을 갈치엄마와 함께한 끝에 갈치가 세상에 나오는 모습을 보았던 그 특별했던 순간은 이미 예상을 했었지만 그보다 직접 아이를 키우면서 더욱, 생명과 사람과 삶에 대한 많은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문득문득 갖게 됩니다. 종종 참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들까지. 물론 하루하루 늘어가는 갈치의 예쁜짓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아이 키우기의 더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세월이 흘러 갈치가 저와 대화를 하고 함께 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그때는 아빠와 온종일 함께 했던 이 1년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기억으로도 저는 충분히 흐뭇하고 뿌듯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치야, 남은 4개월도 우리 재미있게 한 번 잘 지내보자구~^^ 날아라~ 갈치~!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휴직 중, 기간제 전업주부.
민우회 상근자 나우랑 같이 살고 있음. 5월이 가기 전에 피마를 해볼 생각임.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생산자에게 생산 활동에 따른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무역을 말한다.

공정무역을 지지하십니까?

박정아 ●

지난 몇 십 년 동안 자유무역은 이론과 달리 선진국과 제3세계와 불공정한 교역조건을 형성했다.

자본은 어떤 규제도 받지 않은 채 더 낮은 임금과 허술한 환경기준을 찾아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이윤을 남겼다. 반면, 가난한 나라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가격에 착취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윤만을 쫓는 시장과 자본은 제3세계 노동자의 존엄성 훼손이나 생태계 파괴와 같은 사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1996년 미국의 <라이프>지는 “당신이 150달러를 주고 산 나이키 신발을 만든 사람은 12살 파키스탄 어린이이며, 그 아이가 하루에 받는 돈이 고작 2달러에 불과하다”며 ‘자유무역’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기도 했다.

“원조가 아닌 무역을!”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은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가 호황에 접어 든 50년대 후반부터 등장했다. 이어 미국의 텐 사우전드 빌리지, 영국의 구호단체 옥스팜 등의 시민단체들이 제3세계의 정치적 민주화를 지원하고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무역에 뛰어들었다. 1969년 네덜란드에서는 제3세계 상품을 판매하는 월드숍이 최초로 문을 열었다.

1968년 인도 텔리에서 열린 UNCTAD 컨퍼런스(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를 비롯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은 “원조가 아닌 무역을!”(Trade Not Aid)이란 구호아래 시민운동으로 모이게 된다. 이는 북반구 선진국이 무역의 모든 이득을 전유한 채, 아주 작은 부분만을 개발원조라는 형태로 가난한 제3세계 생산자들에게 돌려주는 불공평함을 타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정무역이 지금과 같은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주류 시장경제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공정무역 커피의 대명사인 ‘막스 하벨라르’가 등장한 1980년대부터다. 막스 하벨라르는 공정무역 업계 최초로 인증마크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공정무역 제품 구매를 쉽게 했고, 인지도를 높이는 등의 기여를 했다. 막스 하벨라르의 성공 이후 유럽에서는 독일의 ‘트란스페어’, 영국의 ‘페어트레이드재단’ 등 공정무역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금은 북미와 유럽을 넘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인간적인 시장을 만드는 대안기업의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여성민우회 생협이 공정무역 생활제

여성민우회 생협은 지난 2006년 설탕과 커피 등 수입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생활제 공급을 요구해온 조합원들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생활제 선정원칙을 개정하고 수입품 항목을 추가했다. 이 때 가능한 공정무역 생활재를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초기 단계라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지 못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생활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 공정무역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여성민우회 생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정무역 생활재들은 아래와 같다.

● 공 정 무 역 커피

공정무역 인스턴트 커피는 콜롬비아 커피 생산자 연맹에서 소유한 가공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고 FLO 공정무역 인증을 받았다. 동티모르산 원두커피는 농약, 화학비료, 유전자 조작 위험이 전혀 없는 야생 커피를 전통 수작업 방식으로 수확하고 있으며 1상자 당 400원이 동티모르 평화 재건과 커피농가 지원 사업에 쓰이고 있다.

● 마 스 코 바 도 설탕

마스코바도는 필리핀 전통의 흑설탕 제조방법을 말한다. 미국 자본이 들어와 정제 백설탕을 생산하고 미국산 설탕을 수입하면서 마스코바도 제조법은 사라져 가고 설탕 생산 노동자와 농민은 더욱 빈곤에 빠졌다. 이런 빈곤에 빠진 노동자와 영세농민의 자립을 지원하려고 마스코바도 설탕을 공급하고 있다. 설탕 한 봉지에는 200원의 교류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 팔 레 스 타 인 올 리 브 유

팔레스타인 올리브유 민중교역은 영토분쟁과 고립화 정책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농민의 자립과 중동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실현에 기여하려고 한다.

● 초 콜 릿

콜롬비아 'Compania Nacional De Chocolates' 사로부터 아동 노동 없이 생산된 카카오를 직거래로 수입하여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고 만든다. 초콜릿 생산자에게는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공정한 가격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 음식과 생필품 등을 바로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

그러나 지금의 공정무역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여전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애초 공정무역이 내세운 가치들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정무역은 다른 대안이 없는 조건에서 최고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선이라고는 말할 수 있다. 자유무역과는 달리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공정무역 단체 네팔리 바자르는 공정무역으로 발생한 수입의 일정 부분을 생산자 마을에서 아동교육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제3세계 노동자와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공정무역을 지지하는 이들이 기계로 찍어낸 제품과는 달리 모양이 조금씩 다른 도자기나 팔찌 등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일반적인 상품을 사는 것에는 얻을 수 없는 보람 때문이다. 나의 소비가 누군가(특히 제3세계 어린이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바로 그것 때문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공정무역을 지지하십니까?” ㉠

끈질긴 도전으로 만난 소중한 인연

이은영(노원마을모임) ●



그때가 벌써 9년 전이구나! 좋은 경치에 반해서 미등기아파트의 개념도 모른 채 노원구에 5개밖에 없는 미등기아파트에 겁도 없이 덜컥 이사를 한 것이...

이사 후 2년쯤 지나자 미등기의 문제가 진행형으로 내게 다가왔다. 게다가 우리 아파트 앞에 우리 땅까지 불법으로 끌려간 새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하는 시점이라 우리 아파트 소수의 주민들의 상실감이 너무 컸다. 새아파트 뒤의 10년 묵은 미등기아파트에 살아야 하는 초라함이 겹쳐 주민들은 환병이 날 지경이었다.

나는 간만에 피가 끓어 미등기의 원인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구청의 과중한 기부채납요구와 몇몇 개인의 비리가 원인이라는 것을 안 후 주민들과 함께 등기를 마무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우리 주민들은 6개월 여를 잃은 땅문제로 싸우다 약간의 공사에 따른 소음에 대한 보상만 받고 흠어지며 화가 나 있었다. 나는 주민들의 뜻을 등기로 마무리 해야한다고 맘먹고 2년여를 동대표로 나서서 여성들로 동대표회를 구성하고 부녀회와 공동회의하며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갔다. 산너머 산, 고개너머 고개인 10년 묵은 아파트의 문제를 적게는 5명, 많게는 50명, 급기야

150명 동원 규모의 시위까지 한마음으로 뭉쳐 함께 참여한 주민들의 힘으로 2005년 드디어 등기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등기를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리고 주민들은 건물과 토지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정상적인 등기부등본을 하나씩 받아안고 기뻐했고, 우리는 조촐한 자축파티를 하고 바로 동대표를 사임했다. 박수칠 때 떠나는 맛을 제대로 느껴본 최초의 경험이었다.

그 후 4년 간 당시 함께했던 주민들은 여전히 부녀회와 동대표로 활동하며 (변갈아) 각자의 역할을 맡껏 발휘하며 재미나게 동네를 위해 봉사해 오고 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서로 의견을 묻고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합리적인 풍토가 생겨났고, 고도로 숙련되어 지금 그분들의 역량은 동네에서 썩기(?) 아까울 지경이다. 구심역할을 했던 몇몇 분들은 지금도 동네와 이웃의 일에 적극적으로 애정을 보이시고 올해 들어서는 아예 민우회에서 하는 각종 모임, 교육에 참여하신다. 그 사이 인근으로 이사를 간 주민들도 여전히 모임에 적극 합류하고 이곳에 애정을 준다.

그리고 작년 겨우내 심심하고, 답답하고 사회적으로 경기

가 무척 अच्छ아 모두의 마음이 스산할 때쯤 이럴 땐 ‘강~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으므로 기회를 노리던 중 민우회에서 연결해준 모 단체에서 진행하는 ‘아프리카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에 우리 노원 모임이 동참하기로 했다. 20년만에 뜨개질이라는 걸 해본 우리들은 서로의 낯선 모습을 보며 신기해하고, 아이들은 남을 위해 뭔가를 하는 엄마를 보며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같이 한 달 반을 뜨개모임을 했다.

우리 주민들은 뜻이 있어 민우회를 찾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몇몇 민우회원의 면면을 보면서 조금은 낯설게 민우회를 알아가고 있는, 새로운 경로의 회원이 될지도 모른다. 그들이 찾아온 민우회에 얼마나 감동할지 혹은 실망해 떠날지... 그래도 민우회는 상관없다. 항상 땀가를 바라지 않는 공급에 익숙한 우리들의 삶이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삶의 철학 속에 허덕이는 우리네 삶이므로 민우회의 그 포용력(?)에 감동하지만 뭐 어쩌랴. 좋은 사람들이라면 서로에게서 약을 배울 것이리라 믿는다.

민우회에서 노원마을모임이라 칭하는 우리 모임은 적으면 5명, 많으면 10명 넘게 모여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도 돌아보며 민우회에서 하는 각종 강좌에 참여하고 민우회의 좋은 교육자료도 접하며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어가고 있다. 노후의 당당함을 살짝 바라면서 면월경 대만들기를 하며 여성의 몸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바느질하는 서로의 모습에 또 놀래고... 어떤 분이 나보고 여성스러워졌나(?)... 그래서 아들을 키울 땐 남자처럼되고 딸을 키우자니 여성스러워졌나 모르겠네요... 했다.

게다가 동네가 좁은데 5명 정도는 모이다 보니 못여성들이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는 정치적 행동을 스스럼없이 한다.

예를 들면, 노원구의회 방청같은 건 “참 쉽죠~ 잉?” 하며 취미 생활로 즐긴다. 강 앞았다 오는 거지만 가슴을 친다. “애고 내가 뽑은 놈이 저런 놈이여?” 하며...

요즘 사람들은 참 아는 것이 많다. 정보가 넘쳐나고 주부들도 예전같지 않아서 정말 여러모로 주체적이고 당당하고 현명하다. 특히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내 눈엔 더 예뻐보인다. 고맙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 그런데도 어떤 의미 있는 만남, 좀 건질 것이 있는 만남,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만남이 뭐 없을까 할 때 민우회와 연결이 되었고 민우회의 지원 속에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좋다. 나만의 착각인가?

좋은 동네에서 선량하고 순수한 주민들과 함께 맘껏 좋은 일을 의논하며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동네에서 끈질긴 도전을 통해 얻어낸 진실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다. 그분들을 만나서 참 많이 배우고 열리고, 민우회를 만나서 중심을 잡고 소통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보면 어지러운 세상도 좋게 변화할 날이 오겠지.

천천히 우리처럼 서로 배우고 끌어주고 그렇게 사는 우리 나라가 되면 좋겠다.

사람으로서 중심을 잡고 자유롭게 사는 것, 민주주의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는 것, 졸렬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민우회와 함께 우리 모임에서 작게 실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우리 모임을 통해 바라는 작은 소망이다. **ㅁ**

이은영 ● 동북민우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이은영선 올해부터는 운영위원으로 조직위원으로 활동을 새롭게 시작한 이은영선의 열정이 새록새록 기대됩니다.



고양여성민우회

the 민우 the 가까이

- 우리, 봄 소풍가요~♪

정회원의 날 - 봄 소풍

• 일사: 5월 21일(목) 9시30분

고양 여성민우회 사무국 집결

• 장소: 공릉

나 걷는다 - 강화올레

해안도로 반만 걷기

• 일사: 6월 11일, 둘째 주 (목)

• 장소: 마두역 출발

아름다운 동행 - 2009년 재정사업

밥도 먹고 책도 사고

• 일사: 6월 20일(토)

• 장소: 미정

광주여성민우회

성교육강사 보수 및 재위촉교육

성교육강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여성과 노동, 김미경교수)

• 일사: 5월 9일(토)

• 장소: 너나들이 찻집

5월여성제 참가

분향제, 퍼포먼스, 주먹밥나누기, 국민대회 참가 등

• 일사: 5월 17일(일) 오전 10시~

• 장소: 광주 5.18 묘역

상담원의 날

신입 자원 활동가와와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담원 봄나들이"

• 일사: 5월 20(수) • 장소: 미정

멋진 나를 위해 로그-인!

다솜누리 생활인들의 신나는 여행(신기한 문방구, 훌훌 타는 기쁨, 걸림돌과의 승부, 인생의 갈림길, 멋진 우리 등)

• 일사: 5월 23(토)~24일(일) (1박 2일)

• 장소: 장성 한마음 자연학교

군포여성민우회

평등지킴이 '우리는 좀마 서포터즈'

지역의 불평등한 사례를 모아 평등마을을 만들어갈 지킴이 양성과정

• 일사: 5월 11일 - 7월 13일

매주(월) 오전10시-1시

• 장소: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

생활환경 지도사 양성교육

생활 속의 유해환경 개선과 바른 먹을거리 교육

• 일사: 5월 13일 - 6월 10일

매주(수) 오전 10시-12시

• 장소: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

녹색구매 교육

지속가능한 생산소비확산을 위해 소비자의 녹색 구매 의식을 개발하고 실천하게 한다.

• 일사: 5월 20일 - 6월 3일

매주(수) 오전10시-12시

• 장소: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정회원의 날 '홀커밍 데이'

서울남서지부창립기념 정회원 만남의 날

• 일사: 2009년 5월 12일(화)

오전 10시-12시 30분

• 장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교육장

생활환경 지도사 양성교육

생활 속의 유해환경 개선과 바른 먹을거리 교육

• 일사: 5월 13일 - 6월 10일

매주(수) 오전 10시-12시

• 장소: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

함께해요! 들꽃후원

민우회가 추천하는 책도 사고, 기부도 하는 문화 나눔 자리

• 일사: 2009년 5월 23일(토)

• 장소: 양천 구민 회관 분수광장 앞뜰장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민우여성학교

1강. 여성주의 아직도 필요해?(김은실)

2강. 대한민국은 군대대(권인숙)

3강. 타고난 성이란 없다(한채윤)

4강. 오빠는 필요 없다(전희경)

• 일사: 2009년 5월 12일(화) - 5/22(금)

매주 화, 금 총 4강

• 장소: 덕성여자대학교

정회원 만남의 날 "민우 데이"

광주민주항쟁 30주년 준비를 위한 행사 참여

• 일사: 2009년 05월 17일(일)

• 장소: 미정

도봉구 의정비 반환을 위한 행정소송 선고공판

- 일시: 2009년 5월 20일(수) 10시
- 장소: 행정법원 101호

환경과 나눔을 생각하는 민우 되살림 장터

- 일시: 2009년 05월 29일(금)
- 장소: 동북여성민우회 앞

원주여성민우회

성교육 강사양성 교육

성교육 강사양성을 위한 교육

- 일시: 2009년 4월 27일~6월 3일
매주 (월,수,금) 10시30분 - 13시30분
- 장소: 밝음신탁 2층

언니네 베품시장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 친환경적인 물건의 재활용, 지부의 수익사업

- 일시: 2009년 5월 16일 / 6월 20일
셋째 주(토) 오후 2시 - 4시
- 장소: 밝음신탁 건물 앞

원주시민 인간띠잇기

미군기지 캠프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원주시민의 의지를 보여줌

- 일시: 2009년 6월 13일(토) 오후 2시
- 장소: 미군기지 캠프

인천여성민우회

여성주의 전문극단 양성과정- 여성, 연극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자!

연극의 이해, 연극의 기초, 캐릭터 분석 및 공연 배역정하기

- 일시: 5월 12(화) - 7월 3일(금)
- 장소: 인천여성민우회 교육장, 소극장(대관)

행복한 동행 밥 나눔 축제

인천여성민우회 재정마련을 위한 밥집

- 일시: 6월 20일(토) 밥집행사
- 장소: 부평구청 구내식당 7층

인천 시민 행동의 날

계양산 롯데 골프장 저지와 자연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행동의 날

- 일시: 6월 21일(일) 인천 시민 연대 동참
- 장소: 계양산

6월 회원의 날

공연과 더불어 회원들과의 소통의 시간

- 일시: 6월 20일(토) 밥집행사 후 뒤풀이
- 장소: 미정

여성주의 전문극단 공연

- 일시: 6월 28일(일) 여성주의 연극 공연
- 장소: 소극장

진주여성민우회

생협 운동의 이해

- 일시: 4/13 - 6월까지 매주(월) 10강
- 장소: 진주여성민우회 교육장

제8회 논개제 여성팔씨름대회

- 일시: 5월 2일(토) 오후 7시30분
- 장소: 진주성 특설무대

논개제 여성노래자랑

제8회 논개제 여성노래자랑

- 일시: 5월 3일(일) 오후 8시
- 장소: 진주성 특설무대

성폭력 바로알기 캠페인

‘성폭력 바로알기’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

- 일시: 5월 7일(목) 오후 3시
- 장소: 진주시 금산

공연이 있는 장터

무대는 민우회 공연은 시민이 신명나는

일몰살롱 번개시장

- 일시: 5월 16일(토) 오후 2시 - 4시
- 장소: 신안동 주공1차 APT(앞) 분수대

생산지견학

섬진강 재첩잡이

- 일시: 5월 23일(토)
- 장소: 하동군 적량면

춘천여성민우회

“인문학, 시민을 품다”

인문학 대중강좌

- 일시: 2009년 2월 - 6월,
매주 (목) 오후 7시30분
- 장소: 강원대 인문3호관 405호

“민들레”모임

여성 한부모 서로 힘주고 힘 받기 모임

- 일시: 매월 셋째 주 (금) 오후 7시
- 장소: 춘천여성민우회 달팽이공부방

“자매들의 베품시장”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쓴 거 또 쓰는 환경장터

- 일시: 5월 9일(토) / 6월 13일(토) 오후 3시
- 장소: 공지전 산책로

“들꽃나들이”

춘천 능선 따라 걷기

- 일시: 5월 23일(토), 6월 27일(토)
- 장소: 금병산, 드름산

재기발랄 발칙한 그/녀들의 회원모임

한국여성민우회에는 다양한 회원 모임이 시끌벅적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주의와 나의 일상에 대해 부담 없이 수다가 가능한 곳! 민우회의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곳! 심심하거나 비가 오는 날, 부담 없이 한 잔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곳! 바로, 민우회 회원 모임입니다! 민우회 회원 모임과 함께 하지 않으실래요? 민우회 회원 모임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함께 하고픈 모임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다양함으로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모임 「다소」

손으로 하는 소소한 즐거움(금속공예, 재봉틀을 이용한 만들기 등 체험학습), 몸으로 하는 소소한 즐거움(배드민턴, 볼링, 탁구, 농구, 축구, 당구, 스케이트), 입으로 하는 소소한 즐거움(여성이슈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논의하기)을 만들어 갑니다. 최근에는 결혼 이후 여성의 삶, 사랑받지 않을 용기 세미 진행과 포켓볼, 탁구 등을 진행했습니다.

모임 매달 격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6월 10일 ...)

문의 바람(joje@womenlink.or.kr),
하이디(jaju95@womenlink.or.kr)

삶은 여행! 소설은 여행 중의 여행!

「세.여.소」 세계로 가는 여성주의 소설읽기 모임」

‘세여소’는 한 달에 2번 민우회에서 출발합니다. 세여소는 2007년 ‘ 굶주린 여자’(중국, 홍잉)를 시작으로 거미 여인의 키스(아르헨티나, 마누엘 푸익)를 지나 2009년은 마음(일본, 나쓰메 소세키), 페미니즘 동화(독일, 헬가 게버트), 시녀이야기(캐나다, 마가릿 앳우드), 여자만의 나라(미국, 샬럿 퍼킨스 길먼)를 읽고 있습니다.

모임 매달 2, 4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6월 10일 ...)

문의 싱키루(sinkiroo@womenlink.or.kr)

작심삼일 「작삼모임」

주머니가 가난하다고 문화생활까지 가난할 순 없다! 작심삼일로 정리되었던 개인별 다짐들 여기서 3번이라도 해보자! 문화가 결핍한 우리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자. 매주 주제를 변화하여 영화, 책, 드라마, 연극, 만화, 소풍, 사진, 손글씨 쓰기 등 다양한 문화 주제를 정하여 2달씩 계획 짜서 진행합니다. 추구하는 것은 한 주제를 오래 파기보다 다양한 거 잡식성으로! (하나를 깊이 파는 건 일터에서나 하자 ^^)

모임 매달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9일, 6월 12일 ...)

문의 꼬깸(kkokkam@womenlink.or.kr)

영화 소모임 「요망단」

거친 솜씨지만 진솔하게 영화를 만드는 모임입니다. 요망단은 위로의 공간이자 색끼발랄 그 자체, 엔터테인먼트, 활력소에도 듬직한 친구 같은 모임이지요. 요망단원들이 생각하는 영화란, 일가장이기도 하고 증명사진 같은 현실 그리고 짝사랑인 동시에 첫 데이트의 설렘과 같습니다. :) 격주마다 영화를 통해 인생을 읊조리고 싶다면, 매력적인 요망단원이 되고 싶은 분! 자~ 요망단원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모임 매달 격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6월 9일 ...)

문의 요망단장 폴(paul@womenlink.or.kr)

나를 찾아가는 모임 「MBTI 모임」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길잡이 MBTI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MBTI모임은 MBTI 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을 찾은 후 16가지 성격유형을 공부해 가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분들 함께 하면 좋습니다. ^_^ 자신의 성격이 알쏭달쏭 궁금하신 분,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은 분, 자신의 성장을 위한 심리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 성격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 어서 신청하세요~!

모임 매달 격주 월요일
(6월 8일, 6월 22일 ...)

문의 보라(goldherb@womenlink.or.kr)



한국여성민우회 1/4분기 결산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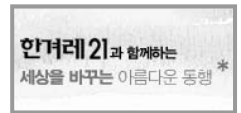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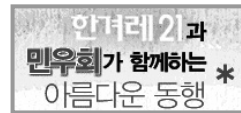
(2009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단위 : 원)

I. 수입내역	금액
회비수입	46,300,900
후원금	26,753,290
기타수입	2,021,289
수입합계	75,075,479
II. 지출내역	금액
인건비	66,760,010
복리후생비	80,000
사무용품비	2,350,400
사무행정잡비	1,583,213
사회보험금비	6,963,320
소모품비	538,650
시설관리비	500,000
연대활동비	2,896,710
제세공과금	1,258,220
지급수수료	708,600
통신비	2,059,090
회의비	539,490
정보홍보사업비	5,616,260
조직활동비	7,307,246
정책연구교육사업	11,477,687
지출합계	110,638,896
III. 당기수지차	-35,563,417

※ 2009년부터 분기별로 <함께가는 여성>과 민우회 홈페이지에 결산 보고서를 게시합니다.

*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동행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은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겨레21>이 연대하여 상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회원이뿐만 아니라 누구나 기부단체를 한국여성민우회로 지정하여 <한겨레21> 정기구독을 신청할 경우, 구독료의 20%한도 내에서 회원님의 이름으로 한국여성민우회에 후원금으로 적립해 드립니다.

<한겨레21> 정기구독을 하고 계신 민우회 회원분들!! 구독 기간 갱신하실 때 기부 단체를 ‘한국여성민우회’로 지정하시면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우회 홈페이지

(www.womenlink.or.kr)에 있는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동행’ 배너를 클릭! 해 주세요.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하신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우회의 주인은 바로, 회원 여러분입니다! ♥

〈함께가는 여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함께가는 여성〉을 읽고 느낀 점이나, 민우회에 바라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독자마당'을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채택된 의견에 대해서는 민우회가 마련한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독자의견은 민우회 이메일 minw●●@womenlink.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쾌한 변화의 시작!

‘딱 한잔’ 회비 인상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민우회 활동에 대한 지원과 참여로 매월 꼬박 꼬박 회비를 내주시는 민우회 회원님들!! 고마웁고, 또 고맙습니다.

회원님들이 보내주신 회비로 민우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팍팍한 우리들의 살림처럼, 민우회 살림이 여전히 팍팍한 현실입니다. 2009년 민우회 회원 특별 미션!! 회비 인상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 ① 술 한 잔의 값, 카라멜 마키아또 커피 한 잔 값 등 딱 한잔을 민우회 회비로 인상해주세요~
- ② 회비 인상 방법은 민우회 회원 희망팀으로 전화(02-737-5763)를 해서 바람, 여경, 여진, 주가이를 찾아 회비 인상 금액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 ③ 전화가 쑥스러우시다면 메일(friend87@womenlink.or.kr)을 보내주세요. ♥

유쾌한 변화의 시작! ‘딱 한잔’에 동참하여 - 회비인상 하신 고마운 회원분들!!? ♥

김정숙, 배범호, 이인화, 이종학, 정미옥 님 감사합니다!

2009 3/4

신입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영미	김은숙	박수진	신미정	이소라	정선희
곽남희	김은영	박신아	신지영	이숙희	정영애
구기범	김재경	박영숙	신현길	이연임	정원각
구활란	김점숙	박용신	여운숙	이영우	정윤경
권위남	김정미	박용주	연운정	이 완	정은숙
권태현	김정원	박정순	오미덕	이유미	정은영
기지혜	김정임	박주이	오연성	이정애	정현미
김다형	김진희	박준동	오은주	이진희	조문제
김도연	김현심	박준형	우 완	이채숙	조옥난
김두나	김현아	박진영	유선정	이초혜	진사현
김명옥	김현주	박홍영	유일영	이현주	최미진
김문정	도영옥	배연숙	윤광웅	이혜정	최방혁
김미란	문경선	백현정	윤연주	장임다혜	최수영
김민소	문명순	서영미	윤지민	전성미	최윤정
김성숙	박가량	성부연	이가혜	전성희	최정숙
김성신	박가은	성수경	이경혜	전영주	최혜숙
김성종	박고은	보 지	이미나	전용숙	한재연
김연정	박덕희	손석호	이미향	정경임	홍성원
김영의	박명숙	송성경	이민주	정선영	홍정은
김영인	박송희	시민생활환경회의	정선철	황부영	
김영주	박수연				

(2009년 3월 21일 ~ 5월 14일)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공 지 지난 호 처음 선보였던 〈철학노트〉 꼭지는 필자 섭외와 꼭지의 성격 보강의 차원으로 이번 5-6월호에는 찾아뵙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호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게 될 테니 기대해 주세요!

2009년 민우회 후원행사!
<연극 ART>에 초대합니다!



규태 / 권해효

Q 자신의 역할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대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이 뭔가 다른데!
 나는 내가 알고 있는대로 내 말대로 너를 대할거야!"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폭력적인가...

수현 / 조희봉

Q 자신의 역할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대사는?
 "당 내림대로 일어나라, 넌 넌 술을대로 해, 네 말대로 살아라"
 문득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게 보이는 이 대사가, 자기의 자존에 대한 물음에
 비로써 발명의 종적 앞에서, 수월 소근로를 얻을 수 있기를,
 ART를 하는 내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덕수 / 이대연

Q 자신의 역할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대사는?
 "좋은게 좋은거죠."
 극 중 덕수를 가장 정확하게 대변해주는 대사,
 더불어 자연인 이대연을 설명하기에도...



문의 및 신청 02.737.5763
 minwoo@womenlink.or.kr(한국여성민우회)

2009.07.17.Fri 8시

1. 일시 ~07.18.sat 4시, 7시

2. 장소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2호선 이대입구역, 6호선 대흥역에서 10분)

3. 티켓
 3만원, 5만원, 특별석 10만원
 2층 2만원

12만 관객의 후회없는 선택!

눈물나게 웃기고, 기막히게 공감가며, 완벽하게 지적인 작품 <아트>!

민우회 회원여러분, 대한민국 대표연극 <아트>와 가슴 빠근한 수다 한 판 어떠세요?

회원문의 02-737-5763 팩스 02-736-5766

고용평등상담 02-706-5050 팩스 02-736-5766

미디어운동본부 02-734-1046 팩스 02-739-1047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 팩스 02-736-5766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02-581-1675 팩스 02-3679-2202

개포매장 02-445-8703 반포매장 02-537-8703 비산매장 031-384-8703 잠실매장 02-417-8703

서울남서여성민우회 02-2643-1253 팩스 02-2643-1252 신청매장 02-2643-6060 목동매장 02-2643-6077

서울동북여성민우회 02-3492-7141 팩스 02-3493-9221 방학매장 02-3492-9999 중계매장 02-934-7999

고양여성민우회 031-907-1003 팩스 031-907-5009 상담 031-919-1366

주엽매장 031-919-1774 마두매장 031-902-3774 덕양매장 031-938-9774

광주여성민우회 062-529-0383 팩스 062-529-0384 상담 062-521-1366 성폭력센터 062-462-1366

군포여성민우회 031-396-0201 팩스 031-394-2343 매장 031-396-0261 상담 031-396-0236

원주여성민우회 033-732-4116 팩스 033-744-0113

인천여성민우회 032-525-2219 팩스 032-525-2256

진주여성민우회 055-743-0410 팩스 055-746-9771 매장 055-746-7077 상담 055-746-7462

춘천여성민우회 033-255-5557 팩스 033-243-9746

